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서부전선 이상 없다

각본 | 감독 김익로

harimao pictures

1. Prologue

한국 현대사 주요 장면 및 한국전쟁 관련 영상과 함께 함께 자막 오른다.

자막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 한국 식민지배 종결.

1945년 9월 2일
전승국 미국과 소련, 남북한 분할 점령 공표.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South Korea

1948년 9월 9일
북한 단독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North Korea

1950년 6월 25일
북한 남침, 한국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3개월 만에 되찾았으나
3년이 지나도록 전쟁은 계속된다.

영상 말미에 '개성 ↑25Km, 서울 ↓34Km'를 알리는 작은 이정표가 보인다.
탱크 엔진소리가 점점 커지며 이정표가 흔들린다.

2. 서울 가는 길 / D

육중한 탱크 캐터필러가 이정표를 짓뭉개며 서울 방향으로 내려간다.
산산조각 난 이정표를 다시 뭉개며 내려가는 또 한 대의 탱크, 그 뒤를 따라 마지막 탱크가 지나가며 이정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군하는 북한군 T-34/85 탱크 뒤로 보병 중대가 따라가고, 제일 뒤에는 군량미를 실은 황소 수레 서너 대가 뒤따르고 있다.
자막 오른다.

1953년 7월 25일 10시

3. 산성(山城), 대대장 막사 / D

사방 벽을 다 말아 올려 지붕만 남은 천막 아래 간이 탁자가 놓여있고, 최중령(보병대장)과 소대장이 마주앉아있다.
탁자 위에는 <1급 군사기밀> <TOP SECRET>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있는 봉투가 놓여있다.

최중령　인민군 하계 총공세가 있을 거라더니, 그거랑 관련 있는 건가?
소대장　저희는 전달 명령만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중령　...니들이 뭘 알겠냐.
(봉투 개봉하면서) 우리가 끝인가?
소대장　아닙니다. 삼일칠 포대가 마지막입니다.

최중령이 비문을 꺼내보는데, 뒤에 있던 무전병이 수화기를 가져온다.

무전병　대대장님, 삼일칠 포대장님 연락입니다.
최중령　나중에 하라고 그래.
무전병　안받으시면 여기 포격해 버린답니다.
최중령　아 나, 이 꼴통새끼.
(거칠게 수화기 잡는다) 왜, 또, 뭐?

4. 포병대대, 본부 / D

막사도 없이 그늘막(위장막)으로 대충 가려놓은 포병대대 본부에서 포대장(유중령)이 무전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서로 말은 거칠어도 듬직한 믿음이 묻어있다.

유중령　야이 간나새끼야. 말이 말같잖네?
담배 게져 오라고 몇 번을 말했네 이 종간나야.
최중령(F)　그러게 왜 빨빨거리고 먼저 진군하고 지랄이야?
니들이 돌격대야? 우리가 돌격대지.
유중령　주댕이로만 전쟁하는 것들이 무슨 돌격대네?
내가 돌격대장이면 벌써 백두산까지 쳐밀어 올라가서.

5. 산성, 대대장 막사 / D

최중령　시끄러 임마. 대충 풀 뜯어서 피워.

최중령이 무전병에게 수화기를 던져주고는 담배를 피워 물며 구시렁거린다.

최중령　짜식이 말야, 전시에 담배 배달할 병력이 어딨어?
(그러다 소대장 보더니 문득 생각이 떠오른다) 니들 어디로 간다고?

6. 산성 / D

대대장 막사를 나오는 소대장, 담배 대여섯 갑을 들고 있다.
대대 집결지를 가로지르는 소대장 주위로 산성 곳곳의 풍경이 보인다.
구릉을 따라 키 작은 성벽이 이어져 있고, 성벽 안쪽에는 임시 막사들이 설치되어 있다.
성벽 아래서는 일렬로 앉아 윗도리를 벗고 이를 잡는 병사들 모습도 보인다.
소대장이 성벽 아래 어느 곳에 다다르자 늙수그레한 상사와 함께 소대원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 상병 계급장을 단 남복이 모습도 보이는데, 소대장 보다는 나이가 한참 들어 보인다.
소대장이 남복에게 담배를 던져준다.

소대장　잘 챙겨라. 포대장님이 담배 안 가져오면 즉결처분 한다니까.
남복　(투덜) 우리가 배달부여 뭐여.
소대장　(짜증나는 눈으로 남복을 보다가) 자, 출발!
상사　(소대원들 돌아본다) 아야~ 장비점검!
군인들　(낮은 소리) 이상 무.
상사　(남복에게) 비문.
남복　(가방 툭툭 치며) 여기요.
상사　봐바바.

비문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반쯤 꺼내 보이는 남복.
<군사1급비밀> <TOP SECRET>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다.

7. 개활지 / D

■ 탱크 밖
북한 탱크부대가 계속 남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마지막 탱크 안으로 들어가면,

■ 탱크 안
덜덜거리는 탱크 내부에는 김일성 초상화와 함께 **'려수로 목포로 부산으로 노도처럼 진군하자'**라는 구호가 걸려있다.
빛바랜 구호 아래 전차장, 조종수, 사수, 기관총수, 그리고 탄약수 영광이가 땀에 범벅이 된 채 자리를 잡고 있다.
조종수용 사이트 밖으로 앞서가는 전차 꽁무니가 보인다.

사수　조종수 동무. 요번엔 진짜루 부산까지 진군하는 겁네까?
조종수　내래 어케 알간? 가라니깐드루 가는 거이디.
사수　유엔군 새끼들이래 하게 대반격을 한다잖슴까. 우리 쪽 작전은 뭐입네까?
조종수　것도 모르구 전쟁 한?
(영광이 돌아보며) 막둥아, 우리에 요번 작전 명령이 뭐이가?

6. 산성 / D

대대장 막사를 나오는 소대장, 담배 대여섯 갑을 들고 있다.
대대 집결지를 가로지르는 소대장 주위로 산성 곳곳의 풍경이 보인다.
구릉을 따라 키 작은 성벽이 이어져 있고, 성벽 안쪽에는 임시 막사들이 설치되어 있다.
성벽 아래서는 일렬로 앉아 윗도리를 벗고 이를 잡는 병사들 모습도 보인다.
소대장이 성벽 아래 어느 곳에 다다르자 늙수그레한 상사와 함께 소대원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 상병 계급장을 단 남복이 모습도 보이는데, 소대장 보다는 나이가 한참 들어 보인다.
소대장이 남복에게 담배를 던져준다.

소대장　잘 챙겨라. 포대장님이 담배 안 가져오면 즉결처분 한다니까.
남복　(투덜) 우리가 배달부여 뭐여.
소대장　(짜증나는 눈으로 남복을 보다가) 자, 출발!
상사　(소대원들 돌아본다) 아야~ 장비점검!
군인들　(낮은 소리) 이상 무.
상사　(남복에게) 비문.
남복　(가방 툭툭 치며) 여기요.
상사　봐바바.

비문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반쯤 꺼내 보이는 남복.
<군사1급비밀> <TOP SECRET>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다.

7. 개활지 / D

■ 탱크 밖

북한 탱크부대가 계속 남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마지막 탱크 안으로 들어가면,

■ 탱크 안

덜덜거리는 탱크 내부에는 김일성 초상화와 함께 '려수로 목포로 부산으로 노도처럼 진군하자'라는 구호가 걸려있다.
빛바랜 구호 아래 전차장, 조종수, 사수, 기관총수, 그리고 탄약수 영광이가 땀에 범벅이 된 채 자리를 잡고 있다.
조종수용 사이트 밖으로 앞서가는 전차 꽁무니가 보인다.

사수　조종수 동무. 요번엔 진짜루 부산까지 진군하는 겁네까?
조종수　내래 어케 알간? 가라니깐드루 가는 거이디.
사수　유엔군 새끼들이래 하게 대반격을 한다잖슴까. 우리 쪽 작전은 뭐입네까?
조종수　것도 모르구 전쟁 한?
(영광이 돌아보며) 막둥아, 우리에 요번 작전 명령이 뭐이가?

영광　　(군기 잔뜩 들어서 부동자세로) 백두광야의 눈보라 폭풍처럼 진군 또 진군하여 원쑤를 격멸하고 남조선을 완전 해방시키는 거입네다.
조종수　(사수에게) 이제 알간?
사수　　무슨 작전이 3년간 똑같습네까?
조종수　전쟁이 작전대로 되간? 뚜껭이나 열라, 쩌죽가서.

영광이가 후다닥 일어나 탄약수용 헤치를 연다.
탱크 내부로 밝은 빛이 들어온다.

■ 탱크 밖
헤치를 열고 나오는 영광.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지나간다.
영광의 시선으로 앞선 탱크들이 보인다.

■ 탱크 앞
선두 탱크 전방, 진동으로 흙이 갈라지며 대전차 지뢰가 보인다.
탱크는 지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뢰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 개활지 근처 작은 언덕
소대 병력의 미군들이 영광의 탱크 부대를 주시하고 있다.
소대장이 수신호를 보내면 미군들이 일제히 총을 조준한다.
탱크가 지뢰에 거의 다가갔다.

영광이가 시원한 바람을 맞아 길게 숨을 들이키고,
무워어~ 긴 소 울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선두 탱크가 지뢰를 밟는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선두 탱크가 전복되면서 캐터필러가 조각조각 끊어진다.
놀랄 겨를도 없이 총 소리가 들리고, 영광이 탱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탱크 위로 총탄이 빗발친다.

■ 탱크 안
탱크 안으로 들어온 영광, 사색이 됐다.

영광　　지, 지, 지, 지뢰
사수　　선두 땅끄 지뢰 밟았슴다.
조종수　쌍간나 지뢰!
기관총수　(장전하며) 우전방으로 돌리라요.

■ 탱크 밖
탱크가 멈춘 상태로 포탑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미군의 공격에 인민군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놀란 황소들이 수레를 끌고 사방으로 도망가면서 군량미 등이 땅에 떨어진다.

탱크 전방의 기관총이 미군들이 숨어있는 쪽으로 불을 뿜는다.

■ 탱크 안

사정없이 발포를 하는 기관총수.
탄피가 탱크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지고, 사수는 포문을 열며 긴박하게 소리친다.

사수　　막둥아, 넣으라!

영광이가 포를 장전하고 귀를 막으면 사수가 버튼을 누른다.
진동과 함께 뜨거운 포탄피가 토해지고, 미군들이 숨어있던 언덕 쪽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 탱크 밖

탱크 두 대에서 포탄이 발사되고, 미군쪽 진영에서도 전사자가 속출한다.
하지만 인민군쪽 피해가 더욱 막심하다.
미군 진영에서 연이어 포탄이 터지고, 소대장이 후퇴 명령을 내린다.

美소대장(E)　　후퇴하라! 후퇴하라!

소대장 옆에 포탄이 떨어진다.
정적.

8. 억새밭 / D

억새잎들이 바람에 서걱거린다.
억새 위로 불쑥 올라오는 소대장의 손.
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면 억새밭 곳곳에서 남복의 소대원들이 몸을 드러낸다.
사주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억새밭을 가로지르는 소대원들.
멀리서 총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온다.

9. 개활지 / D

■ 탱크 밖

간헐적으로 들리던 총소리가 멈춘다.
사격을 중지하고 탱크 뒤에 숨어 언덕 쪽을 보는 인민군들.
대부분 전시 공포로 잔뜩 긴장한 모습이고,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인민군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신음소리 들린다.

■ 탱크 안

각각 자신의 사이트로 전방을 주시하는 조종수, 사수, 기관총수...
영광은 포탄을 들고 숨을 죽이고 있다.

잠시 후, 무전 연락이 들린다.

무전　　교전 종료, 전사상자 수습하라.

길게 한숨을 토해내는 조종수 등 탱크병들.
영광이는 긴장이 풀려 포탄을 든 채 자리에 주저앉는다.

■ 탱크 밖

조종수, 사수, 기관총수, 영광이 차례로 탱크 밖으로 나온다.
참혹한 전장을 보고 놀라는 영광, 얼이 빠진 얼굴이다.
인민군들이 전사자의 무기를 수거하고, 부상자는 따로 한곳으로 모으고 있다.

조종수　(전장을 훑어보며) 종간나 새끼들...
(대원들에게 빠르게 지시한다) 동무는 부상자 수습하고, 동무는 무기 회수하고, 막둥이는... 소 잡아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영광이는 소를 찾아 두리번거린다.
개활지 멀리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황소 수레가 보인다.

10. 남복 부대 몽타주

남복과 소대원들이 개울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
숲을 가로지른다.
곳곳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잡는 모습도 보인다.

11. 개활지 / D

인민군 전사자들이 일렬로 눕혀있고, 중상을 입은 인민군들은 탱크 두 대와 황소 수레에 나누어 실었다.
이제 전장은 거의 정리가 다 된 듯 한데, 음머~ 소 울음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돌리는 영광이, 저 멀리 산마루에서 P-51 무스탕 전투기 한 대가 날아오고 있다.

영광　　저, 저, 무스, 무스
OS　　무스땅이다~

사방으로 흩어져 몸을 날려 포복하는 인민군들.
영광이 혼자만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서있다.
기수를 낮춰 영광이 쪽으로 다가오는 무스땅.

영광이를 비롯 다른 모든 인민군들은 곧 죽을 듯 기겁을 하는데,
'펑~' 소리와 함께 전투기 꼬리에서 하얀 눈송이 같은 것이 퍼진다.
모두 두려운 얼굴로 올려다보면 하늘 가득 삐라가 눈처럼 내린다.
온갖 인상을 쓰고 사라지는 전투기를 바라보는 탱크 부대원들.
삐라는 창공을 덮으며 팔랑팔랑 내려오고, 전투기는 산 너머로 사라지며 또 한 번 삐라를 뿌린다.

12. 소나무 숲 / D

멀리 능선을 따라 삐라를 뿌리고 지나가는 전투기가 망원경 시점으로 잡힌다.
망원경을 내리는 소대장, 지도를 펼쳐본다.

소대장　이쪽 54 고지를 종심 돌파해서
상사　우얄라 그라는교. 건 싹 다 지뢰밭인데.
남복　(혼자 궁시렁) 사방이 지뢴데 걍 똥 밟았다 치야쥬.
상사　앗싸리 이짝을 뚫어버리는게 낫지 않겠심꺼.
소대장　뚫어 질까요?
남복　(또 혼자 궁시렁) 뚫리겄쥬 머 그까이거.

소대장과 상사가 동시에 남복을 바라본다. 남복이 금새 정색을 하고 부동자세를 잡는다.
소대장이 한 마디 하려다 참고 상사를 본다.

소대장　18시까지 도착 못하면 우리만 독박 쓰는 거 알죠?
남복　(투덜) 한 둬시간 유도리는 주겄쥬.
소대장　야 이시키야!
상사　마 가입시데이. 후딱 치아뿔고 시마이 해야 안되겠슴꺼.
　(소대원들 돌아본다) 아야~ 장비점검!
군인들　(낮은 소리) 이상 무.
상사　(남복에게) 비문이랑 담배.
남복　(가방 툭툭 치며) 지가 어디 가겄슈?
상사　확 죽이삔다!

인상을 쓰는 상사, 남복이가 귀찮다는 듯 가방을 열어 보이면 비문과 함께 담배가 보인다.

13. 개활지 / D

붉고 푸른 원색으로 현란한 삐라들이 사방에 널려있고, 인민군들이 삐라를 읽어보고 있다.
조종수가 보는 삐라. **'너희들은 김일성에게 속고 있다'**는 문구가 보인다.

조종수　이런 쌍... (영광이에게) 막둥이 니 속고 있나?

영광　　(부동자세) 개 풀 뜯어 처먹는 소리 말라 전하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이시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자.....

따발총 쏘듯 말하던 영광이 갑자기 겁에 질려 말을 멈춘다.
영광이 시선으로 다시 다가오는 무스탕 전투기가 보인다.

영광　　무스땅이다~

일제히 하늘을 바라보는 탱크 부대원들.
전투기가 기수를 내리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영광이는 허겁지겁 달려가 완만한 언덕 아래로 몸을 날려 피하고, 탱크 부대원들과 인민군들은 전투기를 향해 감자떡을 먹인다.

조종수　　예라이 개간나 양키 새끼들아!
사수　　이기나 처먹으라 이 쌍간나야!

인민군들이 팔뚝을 흔들어대며 욕을 하는데, 전투기 앞에서 섬광이 번쩍이며 둔탁한 기관총 소리가 들린다.
탱크 부대원들 위로 총탄이 빗발치며 흙먼지가 올라온다.
무방비상태로 있던 병력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전투기는 고도를 높이며 낙하형 폭탄을 떨어뜨린다.
폭탄이 두 번 째 탱크 포탑 중앙에 명중하고 탱크는 화염과 함께 폭발한다.

언덕 아래, 겁에 질려 웅크려있는 영광이 위로 흙과 돌 파편 등이 쏟아져 내린다.
비명을 지르며 몸을 더 웅크리는 영광...
하지만 이내 사방이 조용해지고 영광이 고개를 든다.
전투기가 사라진 하늘에 뭔가 새까만 점 하나가 남아있다.
그 점이 점점 더 커지는데...
그리고 자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데...
폭탄이다.
영광이 입을 쩍 벌리지만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고, 눈도 감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는데, 매정한 폭탄은 영광이 바로 앞에 떨어져 버린다.

퍽!

영광이 머리맡에 폭탄이 박힌다.
로트번호 US64227058... 폭탄 몸체에 박힌 번호가 선명하게 보인다.
영광은 숨도 못 쉴 정도로 얼어붙었고, 폭탄 꽁지에서는 쉭쉭거리며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영광　　아으아에아야어어으에....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뒤로 물러서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연기가 멈추는 순간, 영광이 눈을 질끈 감는다.

잠시 후, 매미 소리가 들린다.
영광이 실눈을 뜨고 바라보면 폭탄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불발탄이다.
영광이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탱크가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려 후들거린다.
그러다 멈추는 영광...
전 병력이 전사했다. 시체를 하나씩 확인하는 영광.

영광 니, 니보시라요...
정신 차리시라요...
니보시라요...

전사자는 말이 없다.
영광이가 점점 빠르게 전사자들을 확인해나가는데, 모두 죽었고 조종수만 간신히 숨이 붙어 있다.

영광 조, 조종수 동무...
조종수 막...둥아... 땅끄...를 지키라...
영광 정신 차리시라요. 내래 땅끄 조종도 못하잖슴까.
조종수 도망치지 말라... 땅끄... 버리면... 총살...
(울컥 피를 토한다) 땅끄를... 사수하라...

절명하는 조종수... 영광이 울음을 터뜨린다.

영광 이래 가문 으쩌란 말입네까? 제발 눈 좀 뜨기요, 조종수 동무~

갑작스런 돌풍과 함께 흙먼지가 몰아치고 시끄럽던 매미 소리가 그친다.
곧 무슨 일이라도 닥칠 전조인 듯 무서운 정적이 감돌자 흠칫 놀라는 영광,...
겁에 질린 울음을 흘리며 뒷걸음을 치더니 도망가기 시작한다.
시체들만 남은 자리에 다시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14. 완만한 구릉 / D

태양은 뜨겁고, 구름 하나 없는 하늘에 매미 소리만 숨막히게 들려온다.
땀을 닦아내며 구릉지대를 가로지르는 남복의 소대원들.
단발의 총소리와 함께 선두에 섰던 첨병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며 쓰러진다.
이어지는 요란한 총소리, 몸을 던지며 무조건 사격을 시작하는 국군들...
하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국군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진다.
남복이는 작은 나무 뒤에 숨어 얼굴을 파묻고 머리위로 헛총질만 한다.

소대장　　좌측 후방으로 후퇴! 좌측 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소대장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진다.
상사가 남복이를 끌고 후퇴를 한다.

15. 작은 개울 / D

개울을 지나 후퇴하는 상사, 남복, 그리고 서너 명의 소대원들.
중공군의 거센 추격에 상사와 남복을 제외한 모든 병력이 전사한다.

16. 억새밭 / D

시끄럽게 질러대는 중공군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추격은 가까워졌다.
중공군들이 총을 난사하고, 총탄에 잘린 억새잎이 사방으로 날린다.
상사가 등에 총을 맞고 쓰러지자 남복이 부축을 한다.
남복을 조준하는 한 중공군...
안정된 총열 끝에 남복이 걸리는 순간, 투박한 총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떨어지듯 중공군 진영에 집중 사격이 가해진다.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중공군 위를 낮게 날아 지나가는 무스탕 전투기.
전투기가 선회해 다시 사격을 하고, 중공군들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전멸한다.

엎드려있던 남복이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경계를 한다.
바람에 억새잎만 날릴 뿐 중공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남복이 발밑에서 고통에 찬 기침 소리가 들린다.
상사가 기침을 할 때마다 검붉은 피를 한줌씩 토해내고 있다.
남복이 울상이 되어 상사의 가슴을 지혈한다.

남복　　(미친듯 궁시렁거리며) 이게 뭐여 이게, 뭔 영광을 보겄다고.
상사　　이 뭐꼬 시팔... 우편 배달 할라다가... 쿨럭 쿨럭...

상사는 기력을 잃어가면서도 남복의 손을 치우고 자꾸 일어서려 한다.

상사　　치아뿌라... 비문... 우쨌노...
남복　　(비문 가방 툭툭 치며) 잘 있슈, 여기.
상사　　비문... 비문...
남복　　봐요, 봐. 여깄잖유.

남복이 비문 가방을 열어 확인시키는데, 달랑 담배 한 갑만 들어있다.

<인서트> #14. 구릉 전투

남복이 상사에게 끌려 후퇴하는데,
구르고 넘어지다 가방에서 비문과 담배가 빠져나간다.

남복　　(당황한다) 염병허고...
상사　　(남복의 멱살을 틀어쥔다) 비문... 찾아... 비문... 잃어버리면... 총살...

눈을 부릅뜨고 절명하는 상사... 남복의 멱살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손이 풀리지 않는다. 겨우 상사의 손을 풀어 내려놓는 남복.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섰다가... 어쩔 줄 몰라한다.

남복　　환장하겠네, 아 나 씨, 비문... 이게 뭐여 이게...

이쪽 저쪽으로 총을 겨누는 남복, 이윽고 방향을 잡아 뛰기 시작한다.

17. 포병대대, 진지 / D

유중령과 참모가 포진지를 가로지른다.
곳곳마다 105mm 고사포와 81mm 박격포 등이 보이고, 포병들은 잔뜩 긴장한 자세로 유중령이 지날 때마다 절도있게 경례를 올린다.

포병1　　돌! 격!

건성 인사를 받으며 전방에 있는 위장막 안으로 향하는 유중령.
유중령이 지나간 후, 포병들은 철모를 벗고 한가하게 늘어진다.

유중령　　비문 배달부 언제 온다 그래서.
참모　　금일 18시 도착 예정입니다.
유중령　　비문 바꾼다고 전쟁이 끝나간? 퍼붓고 조져도 시원찮을 판에.
참모　　요즘 부쩍 휴전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유중령이 갑자기 뒤돌아서며 참모의 정강이를 걷어찬다.

유중령　　어떤 쌍 종간나 새끼가 어디서 휴전이란 말 씨부리간!
끝나야 끝나는 게 전쟁이야! 휴전은 지랄...

다시 돌아 막사로 들어가는 유중령.
참모가 한쪽 다리를 들고 깨금발로 따라 들어간다.

18. 포병대대, 본부 / D

막사 안으로 들어오는 유중령과 참모.
무전기 앞을 지키던 상황병이 얼른 철모를 쓰다가 유중령에게 들킨다.

유중령　　아새끼래, 전쟁도 아니 끝났는데 누가 철모 벗으란!

지휘봉으로 상황병의 철모를 내려치는 유중령, 자리 앉으며

유중령　　몇시네?
참모　　현재 시각 16시 정각입니다.
유중령　　북쪽 아무데나 열 여섯 발 날리라우.
참모　　예, 돌격!

경례를 하고 막사 밖으로 뛰어나가는 참모.
잠시 후에 포성이 울리기 시작하고, 유중령은 철모를 살짝 들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낸다.

19. 소나무 숲 / D

남복이 얼굴은 땀투성이고, 입에서 단내가 느껴지도록 정신없이 달리고 있다.
남복이 멈춰 방향을 가늠한다.
오른쪽으로 뛰어 프레임 아웃하는 남복, 잠시 후에 프레임 인 하더니 다시 왼쪽으로 뛰어간다. 그리고는 다시 프레임 인, 나침반을 꺼내본다.

남복　　보자... 동서남북이... 어디여 여기가...

아무리 봐도 길을 모르겠다.
이 쪽... 저 쪽... 머리가 복잡한지 눈을 감고 손으로 방향을 헤아리다가 뒤돌아서 왔던 길로 뛰어간다.

20. 남복과 영광의 교차. 서로 다른 공간 / D

- 폭염을 고스란히 맞으며 달리는 남복과 영광.

- 수레를 끌고있는 황소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다.

- 한참을 뛰다 숨을 헐떡거리며 거친 숨을 토해내는 둘.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둘 다 놀라서 뛰기를 멈추고 황급히 총을 겨눈다.
마치 남복과 영광 둘이 마주친 느낌이다.
권총을 겨눈 채 덜덜 떠는 영광,
소총을 겨눈 채 숨을 헐떡이는 남복...

남복의 시점으로 육중한 자태로 서있는 T-34/85 탱크가 보인다.
영광의 시선으로는 전사한 국군들의 시체가 보인다.

21. 개활지 / D

■ 탱크 밖

완파한 탱크 두 대와 멀쩡한 탱크 한 대, 그리고 전사한 인민군들이 보인다.
인민군 시체를 하나씩 확인하는 남복. 모두 전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탱크를 바라본다.

■ 탱크 안

열린 해치 위로 파란 하늘이 보인다.
불쑥 소총이 들어오더니 탱크 안에 무차별 사격을 한다.
총탄이 탱크 벽면에 튕겨 계기판에 박히자 스파크가 일며 연기가 피어오른다.

잠시 후, 남복이가 얼굴을 디밀고 내부를 확인한다.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는 탱크 안으로 들어오는 남복.
복잡한 계기판이며 각종 장치들과 길고 짧은 조종간 등을 바라보다가 계기판에서 작은 스파크가 튀자 움찔 놀란다.

22. 완만한 구릉 /D

국군 전사자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다 소스라치게 놀라 권총을 겨누는 영광. 보면 중상을 입은 소대장이 힘들게 총을 집으려 하고 있다.

영광　　꼬, 꼬, 꼬 꼬, 꼼지락 말라.

총을 집으려는 소대장, 하지만 영광은 차마 피투성이 소대장을 쏘지 못한다.
결국 총도 잡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소대장...
영광이 길게 안도의 한숨을 토하며 주저앉는다.

<인서트> 탱크 안
계기판 여기저기 버튼을 눌러보는 남복.

영광이 주저앉은 바로 앞에 비문 봉투가 떨어져 있다.
봉투를 집어 드는 남복, 앞쪽을 돌려보면 <군사1급비밀> <TOP SECRET>란 붉은 도장이 찍혀있다.
놀라는 영광, 괜히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고는 봉투를 열어본다.

<인서트> 탱크 안
남복이 '이게 뭔가~' 싶어서 버튼을 눌러본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탱크가 진동하면서 뜨거운 포탄피를 토해내는데,

엉광이가 비문을 꺼내려는데.
쾅!
멀리서 탱크 포 소리가 들린다.
놀라 일어서는 영광. 뛰기 시작한다.

23. 포병대대. 본부 / D

유중령 미간이 살짝 일그러진다.

유중령 뭔 소리 안 들렸네?
참모 뭔 소리 말이십니까?

참모 대답이 끝나자마자 휘파람 소리 같이 공기를 파열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폭발음과 함께 본부 위장막 일부가 무너진다.
파편이 유중령 눈 주위에 박혀 피가 흐르지만, 유중령은 꼿꼿하게 서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여유 있고 냉정한 유중령과 달리 참모는 급히 포복을 해서 유중령에게 기어온다.

참모 대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유중령 이게 괜찮아 보이네? 어느 쪽이야?
참모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령 모르는 게 벼슬이간? 날래 인나라!

본부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유중령.
참모는 낮은 포복으로 부지런히 유중령을 따라간다.

24. 개활지 / D

■ 탱크 밖
남복이 탱크 옆구리 쪽에 서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할딱이고 있다.

남복 염병... 식겁했네...

그 시간, 남복이 서있던 반대쪽에서는 영광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뛰어오고 있다. 탱크를 향해 비문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영광.

영광 조종수 동무~ 내래 도망간 거 아니야요~ 니거 보라요~

남복이 탱크 앞쪽에서 고개를 삐죽 내민다.
환한 얼굴로 남복을 향해 비문을 흔들어 보이는 영광.

남복　　보시라요. 남조선 1급 기밀...

남복이와 영광이의 눈이 마주친다.
멀뚱멀뚱 바라보는 두 사람.
둘 다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인식을 못하는 얼굴이다.
남복이 영광의 손에 들린 비문을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총을 겨누는데, 마음만 급해 총을 떨어뜨리고 만다.
영광이가 기회를 잡아 먼저 권총을 쏜다.
남복이 탱크를 한바퀴 돌아 도망가고, 영광이 총을 쏘며 따라간다.
궁지에 몰린 남복이 탱크 위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영광　　저 쌍 종간나!

영광이 방망이 수류탄을 꺼내 탱크 안으로 집어던진다.

■ <u>탱크 안</u>
남복이 들어오자마자 헤치를 닫는데, 전차장용 헤치로 수류탄이 들어온다.
(탱크 지붕에는 전차장용 헤치와 탄약수용 헤치 두 개가 있다)

남복　　니미!

다시 헤치를 열고 밖으로 수류탄을 버리는 남복.

■ <u>탱크 밖</u>
영광이 던진 수류탄이 헤치 밖으로 나온다.

영광　　뒈져보라 국방군새끼.

언달아 수류탄 두 개를 까던지는 영광.
하지만 곧이어 탱크 안에서 다시 토해내듯 수류탄이 날아온다.
멀리서 터지는 수류탄...
영광은 수류탄이 없자 닥치는대로 짱돌을 집어 던진다.
남복이가 탄약수용, 전차장용 헤치 두 개를 다 닫는다.

영광　　내 땅끄 내노라 이 개간나야!

■ <u>탱크 안</u>
탱크 밖에서 투덕거리며 자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다급한 남복은 탱크 바닥의 비상탈

출분을 발견한다. 문을 열고 탱크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남복.

25. 포병대대, 진지 / D

유중령 이하 모든 병사들이 진지에 모여 멀리 펼쳐진 능선을 바라보고 있다.
포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한데, 다만 유중령 얼굴만은 피투성이라 분위기가 살벌하다.

유중령　이 새끼들이 간보나...
너, 너, 너. 전방 9시에서 3시 방향까지 퍼부라.
(참모에게) 관측병 보내서 사방 5키로메다 이내는 싸그리 훑고.
참모　대대장님... 병력이 없습니다.
유중령　없는거이 장땡이네? 전쟁을 쪽수로 하간?
참모　예 알겠습니다. (거수경례) 돌격!
유중령　돌격은 개뿔!

돌아서는 유중령 뒤로 포격 소리 들린다.

26. 개활지 / D

■ 탱크 밖

탱크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남복이가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한다.
돌만 집어던지던 영광이가 뒤늦게 남복을 발견한다.

영광　저 땅뚜더지 같은 새끼!

영광은 권총을 쏘며 남복을 따라가고, 남복은 지그재그로 뛰며 도망간다.
남복 발치에 총탄이 튀고, 남복은 제풀에 놀라 넘어진다.
남복 주위에 사정없이 총탄이 박히고, 남복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영광의 권총 총알이 떨어진다.

철컥 철컥...
방아쇠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자 당황해 추격을 멈추는 영광...
총탄이 떨어진 걸 눈치 챈 남복, 표정이 돌변하더니 수류탄을 빼들고 일어선다.

남복　이런 샹노무 개 호로시키... 너 일루 와 이새꺄... 안 와?

남복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자 영광이가 냅다 뒤돌아서 뛰기 시작한다.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 동시에 수류탄을 던지는 남복.
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수류탄이 탱크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해치가 닫힌다.
탱크 외벽을 타고 굴러 떨어져 폭발하는 수류탄.

■ 탱크 안, 밖 교차

폭발음이 들리자 놀라는 영광이, 서둘러 조종석에 앉아 이것저것 조종간을 잡아당긴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탱크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조종수용 사이트로 밖을 보면 탱크를 향해 뛰어오는 남복이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이 야차 같아 울상이 되는 영광

영광　　장군님, 령도해 주시라요...

아무거나 막 잡아당기며 이 버튼, 저 버튼 마구잡이로 누르는데, 돌연 탱크 엔진이 작동된다. 영광이 얼굴이 활짝 펴지며 작은 조종간을 힘껏 잡아당긴다.

영광　　가자! 혁명의 철마여.

끼이익~ 육중한 기계음이 들리는데, 움직이란 탱크는 움직이지 않고 포신만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상하다는 듯 조종간을 앞으로 미는 영광, 포신이 방향을 바꿔 돌아가는데, 마치 헬리콥터 프로펠러 같다.

■ 탱크 밖

남복이 황당한 얼굴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남복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 얼굴이다.

■ 탱크 안

영광이가 급해서 허둥지둥 한다. 아무거나 만져보고 밀고 당기고를 계속하며

영광　　왜 안움직이네?

그러다 기어를 잡아당기는 영광, 탱크가 쿨렁거리며 급발진을 한다.

■ 탱크 밖

초보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처럼 급발진과 급제동을 거듭하는 탱크, 포는 여전히 헬리콥터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러면서 남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탱크.
구경만 하던 남복이 정신을 차리고, 아까 떨어뜨렸던 총을 집어 들고 탱크를 추격한다.
탱크를 향해 총을 쏘며 소리를 지르는 남복.

남복　　야 이새끼야. 비문 내놔, 확 씨! 안 서? 너 죽어!

27. 폐허가 된 마을 / D

여기저기 부서지고 무너진 인적 없는 마을...

처열한 접전지였던 듯 곳곳에 부서진 미군 질차, 인민군 따발총과 성조기가 그려진 빈 깡통, 찢어진 중국 깃발 등이 굴러다닌다.
성당 종은 땅에 떨어졌고, 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녹슨 철모 하나만 난간에 간신히 걸려 있다.
위태롭게 서있던 담장이 무너지며 탱크가 들어서고, 그 한참 뒤로 죽어라 따라오는 남복이 보인다.
탱크는 여전히 운전이 서툴러 이리저리 부딪치고 뭉개며 지나간다.

■ 탱크 안

탱크 벽면에 총탄이 튕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찔거리는 영광.
그러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탱크가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영광　　가만... 이런 쌍간나가 땅끄를 뭘로 보고.

영광이가 급하게 조종간을 조작한다.

■ 탱크 안, 밖 교차

탱크가 멈추고, 남복이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다.
탱크 안에서는 영광이 포를 발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영광　　뭬질라믄 호랑이 불알을 못 만지네?

포탄 상자를 열고 포탄을 꺼내 장전을 하려다 보니 투입구가 닫혀있고, 다시 포탄을 내려놓은 다음 투입구를 열고 장전을 한다.
관측 사이트로 밖을 달려오는 남복이 보인다.
탱크가 부수며 들어왔던 담장 쪽으로 남복이가 들어서는 순간, 영광이 발사 버튼을 누른다.

■ 탱크 밖

고막을 찢어낼 듯한 포성과 파동에 휘청 넘어지는 남복, 뒤통수를 감싸며 몸을 웅크린다.
그리고 연이어 계속 들리는 포성...
하지만 남복 주위에는 단 한발의 포도 떨어지지 않는다.

눈을 빼꼼 들고 탱크를 바라보는 남복.
포신에서는 연신 포가 발사되는데 포탑은 여전히 돌고 있다.
사방팔방으로 눈 먼 포탄을 날리는 탱크.
건물들이 무너지고 부서지지만 남복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하나도 없다.

남복　　아이고, 염병헌다.

마지막 남은 수류탄을 뽑아드는 남복, 탱크를 향해 돌진한다.

■ 탱크 안, 밖 교차

분주하게 포를 장전하고 발사하는 영광.
그러다 관측사이트를 보면, 뛰어오는 남복이와 빙빙 도는 포신이 보인다.
발을 길게 뻗어 작은 조종간을 밀치면 포탑이 멈추고, 다시 관측사이트를 보면 남복이 코앞에 다가왔다.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포탄을 놓치는 영광.

동시에 탱크 위로 올라서는 남복.
남복이 해치를 여는 순간, 영광이 해치를 잡아당긴다.
반 쯤 열린 상태에서 멈추는 해치.
둘 사이에 생사를 가르는 힘 대결이 펼쳐지고, 영광이는 체중을 실어 해치 손잡이에 매달린다. 열려는 자나 닫으려는 자나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힘을 쓰고 목에 핏줄이 도드라진다.
점점 닫히는 해치... 남복이 탱크 안으로 수류탄을 밀어 넣으려 한다.
조금만 더 열리면... 조금만 더 열리면...
결국 해치는 닫히고 안에서 철컥 잠긴다.
해치를 발로 밟으며 악을 쓰는 남복.

남복　　열어! 안 열어? 확 뜯어낸다!

하지만 해치는 꿈적도 않는데, 그 옆에 전차장용 해치는 열려있는 상태다.
남복이 움직이려는 순간, 전차장용 해치도 닫혀버린다.
남복이 포기하고 포신을 본다.
포신 안에 수류탄을 넣을 요량으로 포신에 매달리는 남복.

■ 탱크 안

영광이 우는 얼굴로 조종석에 앉는다.

영광　　오마니, 어캅네까...

■ 탱크 밖

남복이 포신 안에 수류탄을 넣으려는 찰나, 포신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포신 끝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는 남복,
이번에는 포신이 아래위로 심하게 요동치며 남복을 털어내려 한다.
그래도 남복이 떨어지지 않자 포신을 털면서 빙글빙글 돌리는 영광.
남복이 너울거리는 포신 끝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바닥으로 팽개쳐진다.

■ 탱크 안

관측 사이트로 바닥에 쓰러진 남복이 모습이 보인다.
영광이도 독기가 올랐다.

영광　　뒈져보라!

■ 성당 앞

탱크가 남복을 깔아뭉개버리려는 듯 위압적으로 다가온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간신히 도망가는 남복.
영광도 조종이 익숙해졌는지 악착같이 따라온다.
탱크에 깔릴듯하면 도망가고, 간신히 탱크 뒤로 숨으면 탱크가 후진을 하고...
정신없이 도망가던 남복이 물구덩이에 반 쯤 잠겨있는 대전차포를 발견한다.
탱크가 남복을 찾아 180도 턴을 하는 동안 대전차포를 집어 드는 남복.

남복　　호랑이 잡는게 담비여 이시키야.

대전차포를 들고 탱크를 조준하는 남복... 대전차포 앞뒤로 시뻘건 녹물이 주룩 쏟아진다.
탱크도 남복을 발견하고 포신을 내린다.
서부의 총잡이처럼 서로 대치하고 있는 두 사람...
그 사이로 성당 꼭대기의 십자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28. 포병대대, 본부 / D

얼굴 반쪽을 붕대로 싸맨 유중령이 상부 부대와 무전을 하고, 참모는 눈치를 보느라 좌불안석이다.

유중령　　사정거리 안에 적군이 감지되는데 병력이 부족합네다. 지원 병력...
...비문 전달 못받았씀다. 18시 도착 예정이었는데
...아 씨팔 말 좀 끊지 마시라요. 지금 비문이 중요합네까?
.. 그럼 내 알아서 할거이니 신경 끄시라요. 오바.

무전기 거칠게 내려놓는다. 지휘봉으로 지도에 아크를 그리며,

유중령　　종간나새끼들, 갓 쓰다가 장 파하가서.
관측병 보내서리 여기서 여기까지 싸그리 훑으라!

29. 폐허가 된 마을 / D

■ 성당 앞

서산을 넘어가는 노을은 폐허가 된 마을을 붉게 물들여 놓았다.
마주보고 서있는 남복이와 영광이 탱크...
대전차포 조준간에 탱크가 정확히 들어와 있다.
탱크의 전방 관측사이트로 줌 인 하면,

■ 탱크 안, 밖 교차

발사 버튼 위에 얹어진 영광이 손가락이 파르르 떨린다.

대전차포 방아쇠에 걸린 남복의 손가락도 떨리고 있다.
누구라도 먼저 쏘기가 힘든 상황이다.
새들이 하나 둘 성당 종탑으로 날아들어 남복과 영광이를 구경한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
덜그덕 달그닥 소리가 들리더니 황소가 수레를 끌고 둘 사이를 천천히 지나간다.
그 많던 군량미는 어디에 흘렸는지 수레는 거의 비어있다.

남복과 탱크 사이를 무심히 가로질러 성당 사잇길로 들어가는 황소.
음무워~ 갑작스런 소 울음소리에 종탑에 앉았던 새들이 날아가는데, 그 바람에 난간에 걸려있던 녹슨 철모가 떨어진다.
땅에 떨어져 있던 성당 종에 정확히 부딪치는 철모.

땡!

권투 시합 종이 울리듯 맑은 소리가 나고, 놀란 남복이와 영광이가 발사를 한다.
탱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대전차포탄,
남복을 향해 뻗어있는 포신에서도 포가 발사된다.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두 포탄.

포탄이 남복을 지나가 성당 벽에 맞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남복을 덮친다.
남복이 쏜 대전차포탄은 불발이 돼서 포신을 맞고 튕겨나고, 타격을 받은 탱크는 앞머리가 들렸다가 떨어진다.
자욱했던 연기가 가라앉으며 탱크가 보이는데, 불발탄을 맞은 포신은 발기된 남성처럼 휘어져 하늘로 불끈 솟아올랐다.

남복은 돌더미에 깔려 보이지 않고, 영광이는 탱크 바닥에 죽은 듯 쓰러져 있다.
박수와 환호, 신나는 음악 들린다.

30. 과거 : 소학교 운동장 / D / 비

폭우 속에 인민군 탱크가 도열해 있고, 확성기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따발총을 든 인민군들이 징집병들을 감시하며 열지어 있고,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은 **<우리조국 강토로부터 무력침공자들은 즉시 물러가라> <단숨에 원쑤 미제 쓸어버리라>** 등의 현수막과 인공기를 들고 장군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앳된 인민군 징집병들이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트럭에 탑승하는데, 영광의 노모가 징집병 대열 속으로 뛰어들어 영광의 손에 부적을 쥐어준다.

영광　　오마니.
노모　　병아리 품듯이 꼭 품고 있으라. 만신님이 돌봐주실께니...
영광　　고만 돌아가시라요...
노모　　살아 돌아오라.

자마 손을 놓지 못하는 노모, 인민군들이 노모를 대열 밖으로 끌어낸다.
노모는 끌려가지 않으려 버둥거리면서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노모　　아가, 꼭 살아 돌아오라... 아가...

등을 떠밀려 트럭에 올라탄 영광이 뒤를 돌아본다.

노모　　아가~ 살아 돌아오라~

노모는 인파에 파묻혀 보이지 않고, 영광이는 비에 젖은 부적만 꼭 쥐고 있다.

31. 폐허가 된 마을 / N

반파된 성당 벽에, 무너진 초가집에, 녹슨 철모에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다.
발기된 포신은 달그림자에 비쳐 우뚝 서있고, 사위는 풀벌레 소리만 가득하다.

■ 탱크 안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는 탱크 안.
죽은 듯 꼼짝 않던 영광의 손가락이 꼼틀 움직인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는 영광, 속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낸다.

영광　　오마니...

부적에 침을 듬뿍 발라 김일성 초상화 옆에 붙이는 영광.

■ 탱크 밖
남복을 덮친 파편은 마치 무덤처럼 그를 덮고 있다.
탱크가 시동을 걸고 움직이자 진동으로 파편이 흔들리며 남복이 손이 나타난다.
탱크가 사라지고, 남복이가 파편 더미를 헤집고 일어선다.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이고, 핏자국이 낭자하다.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탱크를 바라보는 남복...

남복　　그려... 가라, 가 임마.
　　차라리 좆으로 김일성이 목을 치는게 쉽겄다.

툭 내뱉고 시원하게 돌아서는 남복. 탱크를 완전 포기한 듯싶다.

OS　　소대~ 차렷!

남복이가 우뚝 걸음을 멈춘다.

OS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렛!

32. 과거 : 읍사무소 / D

소대원　충! 성!
연대장　충성.

남복이 소대원들이 빳빳하게 경례를 올리고, 연대장도 절도있게 답례한다.
소대장 뒤에 상사를 비롯한 남복의 소대원들이 일렬로 서있다.
연대장이 소대장에게 비문 봉투 뭉치를 건넨다. 얼핏 봐도 예닐곱 개는 넘어 보이는데,

연대장　본 전쟁의 운명을 가를 군사 1급 기밀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부대에 정확히 전달하도록.
소대장　예 알겠습니다.
연대장　죽을 때 죽더라도 비문은 전달하고 죽는다. 알겠나?

33. 폐허가 된 마을 / N

남복　　지랄났다...

돌아서는 남복. 멀어지는 탱크를 향해 걸어가다 발치에 나뒹구는 소총을 주워든다.
탱크를 따라가다 마음이 급해지는지 걸음이 빨라진다.

34. 탱크 안 / N

관측 사이트 밖은 온통 컴컴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탱크를 멈추는 영광. 조종간을 벗어나더니 후방 관측 사이트까지 확인한다.
인기척은 커녕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씩 웃고는 탄박스를 열고 비문 봉투를 꺼내보는 영광.
A4 서너 장 분량의 비문은 모두 암호 해독문으로 가로는 숫자, 세로는 알파벳, 중간에는 한글 자모음이 뒤섞여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보인다. 영광이는 그래도 좋아 암호문을

착착 접으며 부적을 바라본다.

영광　　오마니, 요것만 게지가믄 영웅 칭호는 따논 당상이야요.
금방 돌아가서 호강시켜 드릴거이니, 쫌만 지달리시라요.

환하게 웃으며 수통 뚜껑을 여는 영광.
물을 마시려 하지만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
때맞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린다.

35. 무너진 건물 앞 / N

어둠 속에 서있는 탱크...
큰 나무 그림자에 드리워 탱크는 더욱 위협스러운 괴물처럼 보인다.
남복이 길 건너에서 몸을 숨기고 탱크를 바라보고 있다.
탱크를 쏘아보며 물을 마시는데, 이쪽 수통도 텅 비어있다. 혀를 내밀고 수통을 탈탈 털어보지만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남복　　니미... (수통 집어던지고 각오 다진다) 가자! 간장에 쩔은 놈이 초장이 무섭겠서 시팔.

소총을 끼고 포복을 하는 남복...

■ 탱크 안
영광이 수통 몇 개를 더 살피지만 모두 물이 바닥났다.
영광이가 김일성 초상화를 바라본다.

영광　　이 정도 시련에 굴복하지 않습네다.
영용하고 충성스러운 붉은 군대와 위대한 조선인민군 만세!

꼬르륵...
초상화는 대답 없고 허기진 소리만 들려온다.
초상화를 바라보는 영광이 얼굴이 원망으로 일그러진다.

영광　　인민의 전사래 밥은 안굶긴다 하지 않았슴까...

■ 탱크 밖
탱크 캐터필러 아래 다다른 남복.
탱크 위로 올라가려다 탱크 몸체에 걸려있는 견인줄을 본다.
탱크가 어딘가에 빠졌을 때 끌어내기 위한 와이어 줄인데, 남복이 그걸 잡더니 묘한 웃음을 짓는다.
조심스럽게 견인줄을 잡아당기는 남복, 견인줄을 아름드리 나무에 칭칭 두른다.

남복　　지가 아무리 탱크라도 나무가 뽑히겠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장한 일이라 실실 웃음이 나오는데, 작은 소리에 놀란 산비둘기 몇 마리가 퍼덕이며 나무를 떠난다.

■ 탱크 안

산비둘기 날개짓 소리에 흠칫 놀라는 영광. 황급히 사이드들을 확인하다 뭔가를 발견한다.
탄박스에서 탄창을 꺼내 조립하더니 권총 포트에 총구를 내밀고 세심하게 조준을 한다.

■ 탱크 안, 밖 교차

나무에 견인줄을 두르는 남복이와 권총으로 겨누고 있는 영광이 모습이 교차된다.
남복이가 견인줄을 막 묶으려 할 때, 영광이가 방아쇠를 당긴다.

탕!

단발의 총소리에 산새들이 날아오르고, 남복이는 부리나케 도망가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지그재그로 뛰는 것은 잊지 않는다.
남복이 떠난 자리에 산비둘기 한 마리가 떨어지고, 영광이는 헤치를 열고 나와 산비둘기를 집어 들고 다시 쪼르르 탱크 안으로 들어간다.

■ 탱크 안

산비둘기를 들고 희희낙락하는 영광.
작전지도 및 인민군 수첩, 각종 서류 등 종이란 종이는 모두 모아놓고 권총 꼬질대를 꺼내 비둘기를 끼운다. 이제 불만 붙이면 비둘기 바비큐를 해먹을 수 있다.
주머니를 뒤져 성냥을 꺼내는데, 딱 한 개 밖에 안 남았다.
조심스럽게 성냥을 긋는데, 불이 확 붙었다가 이내 꺼지고 만다.

영광　　이렌 쌍...

울상을 짓는 영광,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 탱크 밖

무너진 담에 기대 담배를 피우며 달을 보는 남복.
음력 15일 보름달이 환하다.

남복　　달 참... 시팔...

양 볼이 오목해지도록 담배연기를 빨아들이는 남복.

36. 과거 : 오두막 마당 / O / 눈

허름한 중의적삼 차림의 남복이 안절부절 못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작은 마당은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고, 주먹만한 눈송이는 그칠 줄 모르고 내린다.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낼 생각도 못하고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이는 남복.

방에서 부인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동작을 멈추고 방을 바라보는 남복.
다시 비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까말까, 귀도 막았다 말았다... 초조하기 이를 데 없다.
그 때 정복 차림의 헌병 3명이 마당으로 들어선다.

헌병1　장남복씨?
남복　누구쇼?
헌병1　영장 나왔습니다.

징집영장을 보여주는 헌병. 남복이 받아드는데,

헌병1　갑시다.
남복　이 사람들이, 내 나이가 몇인데 영장이여?
헌병2　전시 특별법에 따라 징집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히 하기 위해 만 18세
헌병1　설명할 시간이 어딨나. 빨리 데려가!

헌병1의 명령에 헌병 2,3이 남복의 양 팔을 끼고 끌고 나간다.
남복이 격렬하게 반항할수록 헌병들도 거칠어진다.

남복　야, 야, 잠깐만... 아저씨 쫌 놔 바바. 마누라가 지금, 응?
　잠깐만, 좀, 예? 지금 애기 나잖어.
헌병2　유감입니다. 조국을 위해 갑시다.
남복　누가 안간다? 갈 때 갈테니께 애기 얼굴만, 응?
　너 몇 살여 이시키야. 응? 내가 니들보다 한참 형여 임마.
　잠깐만요, 예, 제발요...

사정도 하고 욕도 해보지만 헌병들은 꿈쩍 않고 남복을 끌고 나간다.

37. 과거 : 오두막 밖 / D / 눈

버티고 주저앉고 난리를 치는 남복이를 끌고 가는 헌병들.
집 밖에서는 남복이 고함 소리가, 방 안에서는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남복　아저씨 살려줘요, 응? 지금 애기 나잖어. 예?
　아저씨, 남 좀 바바, 응?
　야 이 개새끼야. 애기 얼굴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녀?

남복은 집에서 멀어져 가고, 집 안에서는 아내의 긴 비명 소리가 들린다.
남복이 목을 높아 소리를 지른다.

남복　　임자~ 아들이믄 원빈이구 지지배믄 영애여~
나 금방 갔다 올거여~ 들려어?~
아들이믄 원빈이구 지지배믄 영애여~

남복의 목소리가 멀어져 간다.

38. 과거 : 오두막 마당 / D / 눈

텅 빈 마당.
긴 비명 끝에 아기 울음소리 들린다.
그리고 멀어져 가물가물한 남복이 목소리도 들려온다.

OS　　아들이믄 원빈이구 지지배믄 영애여~

39. 무너진 건물 근처 / N

초점 없는 눈으로 달을 바라보는 남복...

남복　　원빈아... 영애야... 아빠 금방 갈거여...

코를 훌쩍거리고 눈을 문지르는 남복.
뭔가를 결심한 듯 담배를 비벼 끄고는 일어선다.
탱크를 한 번 뒤돌아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복.

40. 포병대대, 본부 / N

흐릿한 남폿불이 간신히 어둠을 몰아내고 있다.
참모는 죄지은 듯 서있고, 대대장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른다.

유중령　　두 다리 멀쩡한 병력은 다 내보내라지 않아서.
참모　　남은 병력으로 반경 10키로는 불가능합니다.
유중령　　불가능? 못 하는 게 자랑이가? 전쟁을 주둥아리로 한?
인민군 76미리 자주포 사정거리 얼마네?
참모　　15키로메다입니다.
유중령　　120미리 곡사포.
참모　　18키로메다입니다.
유중령　　땅끄는?

참모　　13키로메다입니다.

유중령이 참모의 정강이를 제대로 걷어찬다.

유중령　　고걸 아는 놈이 그란? 포병이 땅끄 밥인 거 모르네? 사거리 안에 땅끄라도 한 대 들어오면 우린 싹 다 작살나는 거이야. 취사병이고 뭐고 뒈지고 싶지 않으믄 날래 출동 시키라!

참모　　네, 돌격!

정강이를 부비며, 엉거주춤하게 경례를 올리는 참모. 밖으로 나가려는데,

유중령　　니보라. (참모 멈추면) 비문 배달부는 아직 안온 거이가?

참모　　예 그렇습니다.

유중령　　그럼 담배도?

참모　　...풀이라도 뜯어 말리겠습니다.

유중령, 입맛을 다시더니 철모를 걷어 올리고 땀을 찍어내는데, 담배가 못견디게 그리운 모양이다.

41. 무너진 건물 앞 / D

■ 탱크 안

관측 사이트 안으로 밝은 빛줄기가 들어온다.
종이 뭉치들과 산비둘기를 지난 빛줄기가 영광의 얼굴로 향한다.
햇살을 피해 몸을 돌리는 영광, 그러다 갑자기 눈을 뜨며 일어나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는다.

영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원수이시자조선로동당총비서이시며조선인민군총사령관이시자...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영광... 입맛을 쩝쩝 다신다.
비둘기를 들었다가 휙 던지고, 빈 수통을 입에 물고 탈탈 털다가 던지고...
입맛을 다시고, 눈을 비비고, 방귀를 뿍! 뀌고... 아직도 잠에 취해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관측사이트로 밖을 살피는 영광.
사방은 고요하고 위험은 없는 듯하다.
겨우 안심하는 영광, 주머니에서 비문을 꺼내보고는 흡족하게 웃는다.
고 조종석에 앉는 영광.

■ 탱크 밖

탱크 시동이 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름드리 나무에 둘러진 견인줄은 설묶인지라 술술 풀려나간다. 그러다 줄 끝이 돌더미에 반 쯤 파묻힌 미군 짚차에 걸리고 만다.

팽팽하게 당겨지는 견인줄, 질차가 탱크 힘을 견디지 못하고 돌더미 속에서 나오고, 탱크는 바퀴가 하나 밖에 남지 않은 부서진 질차를 뒤에 달고 힘차게 나아간다.

■ 남복이 숨어있던 곳

탱크가 남복이 숨어있던 담장을 뭉개며 전진하는데, 남복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42. 폐허가 된 마을 근처 / D

길 양 옆으로 무너진 전봇대와 불에 탄 트럭 등이 보인다.
녹음은 푸르지만 전쟁의 상흔은 곳곳에 보인다.
영광이는 제법 조종이 능숙해져 이제 포탑도 돌지 않고 그리 넓지 않은 길도 잘 지나간다.
탱크 뒤에는 여전히 부서진 질차가 끌려오고 있다.

탱크가 전진하는 앞으로 부상당한 중공군이 다리를 절며 다가간다.
탱크를 향해 반쯤 찢어진 오성홍기를 흔드는 중공군.
탱크가 급정거를 하고 영광이 해치를 열고 나온다.
영광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기력이 다 한 듯 쓰러지는 중공군...

영광　　너보라 동무, 괜찮습네까?

영광이가 서둘러 다가오는데, 중공군이 갑자기 일어나 총을 겨눈다.
영광이 놀라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연신 손짓을 해대며 같은 편임을 강조한다.

영광　　정신 차리라요, 동무랑 나랑 같은 편...
　　나는 북조선, 동무는 중공군, 우리는 형제... 조선 말 모르네?

영광을 향해 씩 웃는 중공군... 중공군 군복을 입은 남복이다.
영광은 중공군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라 생각하고 같이 웃어준다.

영광　　하하... 하하하... 길티, 웃으라요. 같은 편, 형제.
남복　　형제 같은 소리 허구 자빠졌네.

웃음을 거두는 남복, 영광이 반사적으로 권총을 빼려는데 남복이 개머리판으로 영광이를 후려친다.
넘어진 영광을 내려다보며 중공군 군복을 뜯어내는 남복.
안에 국군복이 보이자 그때서야 속은 것을 안다.

남복　　비문 어딨어?
영광　　비열한 국방군 새끼...

남복이가 개머리판으로 영광이를 내려찍는다.

<점프>
영광은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엎드려 있고, 남복은 영광의 뒤통수에 총을 겨눈 채 몸을 수색하고 있다.

남복　　미치것네. 엇다 뒀어?
영광　　난 모른다.
남복　　다섯 셀 동안 말 안하면 아주 죽어 그냥... 셋, 넷, 다서...
영광　　잠깐! 비밀 문서 주면 살려줄 거이가?
남복　　이게 엇다대구 흥정여? 빨리 안 내놔?
영광　　기럼 못준다.
남복　　너 확 그냥 아주 골로 가는 수가 생겨.
영광　　살려준다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못내논다.
남복　　(짜증 폭발) 살려주면 될 거 아녀, 응? 응? 응?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총으로는 계속 영광이를 내려친다.

■ 탱크 안

눈덩이는 부어오르고 코며 입가며 피를 흘리고 있는 영광이는 조종석에 앉아있고, 남복이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탱크를 뒤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비문이 나오지 않는다.
남복이 호흡을 가다듬고 차갑게 내뱉는다.

남복　　마지막이니께 똑바로 대답하, 비문 엇다 뒀어.
영광　　모른다.
남복　　환장하겠네. 얌마 인민군. 앗쌀하게 딱 얘기해주면 너두 살구 나두 살구, 응? 누이 좋구 매부 좋은 거 아녀.
영광　　데데하게 굴지 말고 죽일 자신 있음 방아쇠 땡기라!
남복　　좋아. 너 우리 부대 끌려가서 복날 개 맞듯이 읃어터지고도 그 소리 나오나 보자. 운전 햐!
영광　　개 뻑다구 갉아먹는 소리 말라. 포로로 잡히느니 자랑차게 뒈지가서.
남복　　(총구로 뒤통수 쿡쿡 지르며) 어여 운전 안 햐?
영광　　(김일성 초상화를 본다) 영용하고 충성스러운 붉은 군대와 위대한 조선인민군 만세!

탕!
방아쇠를 당기는 남복.
김일성 초상화가 총에 맞아 떨어지고, 튕겨 나온 총알이 영광이 팔뚝을 스친다.
금새 얼어붙는 영광... 그의 눈에 노모의 부적이 보인다.
울상이 되어 남복을 돌아보는 영광.

영광　　살려주시라요.

■ 탱크 밖

탱크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진하는 탱크 위로 둘의 목소리 들린다.

남복(VO)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남쪽으로 빠꾸 틀어.
영광(VO) 이 쪽이 남쪽입네다.
남복(VO) 북쪽이잖어 이 빨갱이새끼야 어디서 꽁을 까?
영광(VO) 남쪽 맞습네다.

퍽!... 개머리판으로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탱크가 급정거한다.
곧이어 탱크가 180도 턴을 해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자막 오른다.

1953년 7월 26일 10시

43. 시골 읍내 / D

한산한 시골 읍내에 일본식으로 지어진 읍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다.
짚차 한 대가 서더니 별 두 개를 단 장군과 중위가 차에서 내린다.
경계근무를 하던 헌병 두 명이 우렁차게 경례를 올린다.

헌병 충성! 근무 중 이상 무!

건성으로 인사를 받으며 건물로 들어가는 장군.

44. 읍사무소 내부 / D

지휘본부로 사용하는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작전지도가 빼곡하고, 한쪽은 십수 명의 통신병들이 쉴 새 없이 무전을 하고 있다.
장군은 의자에 앉아있고, 연대장은 패도를 펼치고 브리핑을 한다.

연대장 46시간 전, 적 전차중대가 도라산 일대로 진격해 왔으나 UN군의 공격으로 괴멸 당했으며
장군 됐고, 비문은 다 하달 했나?
연대장 현재 삼일칠 포병대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 했습니다.
장군 거긴 언제 전달되는데?
연대장 어제 18시 전달 예정인데, 아직 도착 안했답니다.
장군 그게 뭔줄이나 알아? 당장 다시 조치 해!

45. 탱크 안 / D

영광이는 조종을 하고 남복이는 포탄 상자에 앉아 신나게 군가를 부르고 있다.

남복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 콜록 콜록

고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침을 내뱉는 남복.
은근슬쩍 노래를 그치고 담배를 빼문다. 영광이 힐끔 돌아보고,

영광　　동무, 땅끄는 금연이야요.
남복　　동무는 씨, 내가 니 친구여 임마? (영광 뒤통수를 때린다)
영광　　(성질낸다) 와 때리십네까.
(철컥! 남복이 총 장전하자) 용서하시라요.
남복　　니들은 용서가 안 돼 이시키야. 왜 잠도 안자고 새벽부터 쳐들어오고 지랄들여? 니들이 그렇게 부지런하?
영광　　(조종간 놓고 돌아앉는다) 주둥이래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시라요. 우리는 남조선 인민 대중을 해방시키기 위해

남복이 영광의 뒤통수를 때린다.

남복　　해방된 지가 은젠데 뭘 또 해방을 시켜?
영광　　이 전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로부터 인민 대중을 구해내는 신성한 조국 해방 전쟁이오. 난 그리 배웠소.
남복　　염병헌다. 누가 고따우로 갈쳐주데?
영광　　고따위라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원수이시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자 그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김일성 장군님의 혁명 교시요.
남복　　...김일성이한테 직접 배운 거여?
영광　　(대차게 대든다) 니보라 국방군 동무. 장군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남복　　장군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
영광　　장군님께옵서는 조국 해방의 성스러운 전쟁을 통해
남복　　아가리 안닥쳐?
영광　　지상락원 건설의 웅대한 뜻을 펼치시어
남복　　아가리 닥치라고 이새끼야!
영광　　남조선의 완전무결한

남복이 개머리판으로 영광을 후려친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소리를 지르는 남복.

남복　　내가 니들한테 해방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어 사정을 했어.
왜 잘 사는데 쳐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고 개새끼야.

애기 얼굴도 못보고 이지랄 하는게 지상낙원여?
왜 겨내려와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겨, 시팔...

거친 숨만 내쉬는 남복. 이내 방아쇠를 당길 듯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는데.

영광　　잘못했습네다... 살려주시라요....

남복, 차마 울상을 짓고 있는 영광을 쏠 수가 없다.

46. 포병대대, 본부 / D

참모와 상황병은 무전기를 잡고 상황을 전달하고, 유중령은 지도를 보며 명령을 내린다.
모두 더위에 시달리느라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유중령 때문에 철모를 벗지 못해 더 더워 보인다.

무전　　S하나, 현 시간 386에 넷둘, 너구리 흔적 없다 오바.
유중령　　386에 둘둘 까지 돌격하라우.
참모　　S하나, 386에 둘둘로 이동하라 오바.
무전　　여기는 S넷, 235 다섯으로 이동하나 오바.
유중령　　여태 안움직이고 뭣들 하는 거이야?
상황병　　S넷, 신속히 이동 보고 바란다 오바.

상황병이 무의식중에 철모를 벗고 손부채질을 한다.
상황병 머리 위에 떨어지는 유중령의 지휘봉... 상황병이 서둘러 철모를 쓴다.

유중령　　간나새끼, 어디서 철모를 까네? 너도 출동 하라!

상황병이 부리나케 일어난다.

47. 폐허가 된 마을 / D

■ 탱크 밖

어제 난리를 쳤던 그 마을을 지나가는 탱크.
탱크 진동으로 반쯤 파괴된 성당 건물에 균열이 쩍 생기더니 탱크가 옆을 지나자마자 성당 탑이 무너져 내린다.

■ 탱크 안

침묵을 지키며 앉아있는 남복과 영광. 둘 다 더위에 지쳐 땀으로 흥건하다.
남복이 굴러다니는 수통을 들어 물을 마시려 하지만 남아있는 물이 없다.

영광　(눈치 보다가) 저...국방군 동무. 오지게 덥지 않습네까?
남복　여름이라 그려 임마.
영광　날도 더운데 이러는 기 어떻겠슴까.
내가 비문 줄거이니 동무는 그거 들고 가고, 나는 땅꼬 게지고 가고.
남복　지렁이 용 꿈 꾸고 자빠졌다.
영광　호상간에 자기것만 딱 챙겨서 깨끗하게 헤어지면 되는거 아이겠슴까?
남복　하이구~ 그게 말여 당나귀여. 탱크두 내꺼고 비문두 내꺼여.
영광　기러지 말고, 한민족 한 동포끼리 사정 좀 봐주시라요.
남복　이시키가 아주 염치없기는 천하장사여. 한 민족 한 동포끼리 전쟁 일으킨 게 누구여?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 이시키야.

북!
영광이가 대차게 방귀를 낀다.

남복　이게 죽을라구, 으른 말씀하시는데 똥구멍으로 대답햐?

남복이가 영광이를 한 대 치려고 하는데, 냄새 때문에 코를 싸쥔다.

남복　아나 씨, 공산당 방구...

■ 탱크 밖
해치가 열리며 남복이가 머리를 내민다.
크게 심호흡을 하던 남복이 뭔가를 발견한다.

48. 산골 마을 / D

초가집 대여섯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이다.
동네는 텅 비어있고, 마을 초입의 초상집만 북적거린다.
초상집 입구에는 상중을 알리는 조등(弔燈)이 달려있다.

49. 초상집 / D

늙은 상주와 친척들은 삼베옷을 입고, 주민들은 음식을 만들고, 일부는 상을 차지하고 먹는 등 분주하다.
젊은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모두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뿐이다.
상주가 문상객을 맞아 인사를 나누는데, 건넌방에서 산모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문상객　며느리가 벌써 산달인가?
상주　원래 다음 달인데 요즘 애들은 성격이 급해선지 원.
문상객　아들인가?

상주　　배는 다 아들 배라고 하는데, 고추를 나야지.

다시 산모의 비명 소리 들리고, 뒤이어 꽹과리 소리 들린다.
모두 동작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는데, 잠시 후 할아버지 한 명이 꽹과리를 들고 급하게 들어온다.

할아버지　윗동네, 윗동네. 빨리 빨리.

사람들이 서로 '윗동네'를 되뇌이며 황급히 흩어진다.

50. 초상집 앞 / D

탱크를 향해 인공기를 들고 환호하는 마을 주민들.
해치가 열리고 손을 번쩍 든 영광이 나오자 환호 소리가 더욱 커진다.
상주의 선창을 따라 노래를 부르는 주민들. 음정, 박자, 노랫말 모두 제멋대로다.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열심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마을 사람들, 노래 소리 점점 작아지며 인공기 흔들기를 멈춘다.
보면 영광이 뒤로 남복이 총을 겨누고 있다.
주민들은 황당하고, 남복이는 당황스럽다.
공산당 소굴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긴장한 남복이 주민들을 몰아세운다.

남복　　전부 손들어. 엇쭈, 어영부영여? 안 들려?

탕!
위협사격을 하는 남복. 어물쩡거리던 주민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번쩍 든다.
그 때 뒤늦게 중년의 아낙이 치맛자락에 손을 싸쥐며 나온다.

아줌마　　아이구, 애 받느라 늦어서...

남복이 다급하게 총구를 돌린다.

남복　　아줌만 뭐여. (주민들 있는 방향 가리키며) 절루 가, 절루!

아줌마가 눈치를 보면서 주민들 대열로 합류하더니, 태극기를 꺼낸다.
인공기 물결 속에서 홀로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아줌마.

아줌마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51. 초상집 / D

주민들과 영광은 마당 구석에 몰려있고, 남복은 홀로 평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푸짐한 아줌마는 남복이 옆에 앉아 비위를 맞추느라 나름 애쓴다.

아줌마　아이구, 참말 장해요. 탱크를 생포하신 거에요?
남복　머 저 정도 가지구.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맨손으로 호랭이도 때려잡았는데, 탱크 뭐 그까이거...
아줌마　세상에나, 맨손으로 탱크를 잡았단 말씀여요? 총도 없이요?
남복　총은 살짝 있었고.
아줌마　에이~ 그럼 맨손은 아니시네~
남복　그 정도면 거의 맨손이라고 봐요. 우리는.
아줌마　총 있었다면서요.
남복　(버럭) 그 아줌마, 참! 총은 거의 없었다니께!
아줌마　(기가막히다) 아니,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거의 없는 건 또 무슨 말이래?

코웃음을 동반한 비웃음.
남복이 숟가락을 탕! 내려놓는다.
아줌마가 금새 주눅이 들어 마을 주민들이 꿇어앉은 쪽으로 종종종 뛰어간다.
총을 들고 일어서는 남복. 혀로 잇몸 사이에 있는 밥알들을 훑어먹으며 주민들을 둘러본다.

남복　공산당을 지지 옹호하는 부락민 여러분.
...왜들 그러는 거여. 난 당체 이해를 못하겠네?
우리 한 민족 한 나라가 왜 둘로 갈라져서 전쟁을 하는 거여 지금.
김일성이가 홀라당 나라 세워가지고 딱 갈라스니께 전쟁이 난 거 아녀요.
그걸 몰러서 그러셔들? 응? 답답허게?
영광　국방군 동무. 단독정부는 그쪽에서 먼처 세운 거야요.,
남복　뭔 잡소리여? 니들이 먼저 소련이랑 사바사바 해서 쇼부 본 거 아녀
영광　아닙네다. 미제와 리승만이가 야합해서 먼처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했습네다.
남복　이 새끼가 아주 우기는덴 천하장사여. 니들 언제 나라 세웠어? 멫년도 멫월 메칠여?
영광　... (모르는 눈치다) 그러는 남조선은 언제 정부 수립 했습네까?
남복　... (모른다)
영광　몇 년 몇 월 며칠입네까?
남복　(총 겨눈다) 확 씨! 말해주면 니가 언젠지 알어?
오늘 아주 싹 다 죽는 거여, 전부.

사람들 놀라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린다.

남복　　공산당을 쪼끔이라도 좋아하거나 아주 미세하게라도 도와줬다!
그름 누구든 용서를 못하는 거여, 법적으루다가. 알어?

마을 주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남복...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는 못한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남복이는 계속 갈등하는데,
건넌방에서 산모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건넌방 쪽으로 총구를 급히 돌리는 남복.

남복　　뭐여 저건!
상주　　며늘아기가 그게, 원래 다음 달이 산달인데, 요즘 애들은 성격이 급해서...
이거 전쟁 중에 번잡스럽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쇼.
남복　　손 바짝 들어!

상주 이하 모두가 번쩍 손을 든다.
다시 산모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비명 소리...
남복이 건넌방을 바라보더니 망설이다 물어본다.

남복　　산파는... 들어가 있는 거여?
아줌마　　아이구! 내 정신 좀 봐.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 건넌방으로 달려가고, 눈치를 살피던 다른 아낙들도 하나둘 씩 뒤따른다.

아낙1　　같이 가야지 제천댁~
아낙2　　애 받는덴 내가 박사야~

아낙들과 할머니들이 분주하게 자리를 뜨고, 마당에는 할아버지들과 아이들만 남았다.
남복이 어쩔까 고민하는 눈으로 남은 사람들을 바라본다.
상주가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상주　　저기, 드릴 말씀이...
(남복이 바라보면) 북쪽에서 먼저 나라 세운게 맞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영광　　이보시오 동무, 력사를 호도하지 말라요.
상주　　(주민들 둘러본다) 왜 말들을 안 해? 그 때 다들 같이 봤잖아.
할아버지　봤지. 봤어.
영광　　(큰소리로) 동무들!
상주　　어디서 어른한테 동무라는 소리가 나와? 우리가 니 친구야 이놈아!
할아버지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상주　　(영광을 나무란다) 우리가 중간에서 딱 보면, 그쪽이 문제가 많아. 상당히. (남복 바라본다) 저기, 국군양반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 속마음이 솔직허니, 공산당이 참 그래요.

다시금 산모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남복　　멱국은 끓인 거유?
상주　　아 뭣들 해? 미역국 끓이고 물 따로 데우고, 국군 어르신 술이랑 안주도 내드리고.

상주의 호들갑에 마을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흩어진다.
마당에는 남복이와 영광이만 남았다.

52. 동 장소 / D

영광이는 홀로 마당 귀퉁이에 무릎 꿇고 앉아있고, 남복이는 건성으로 밥을 먹으며 건넌방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상주는 호곡을 하고, 산모는 계속 비명을 지른다.

산모　　아악~
상주　　아이고~ 아이고~
산모　　아아악~
상주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가시고~

그러다 갑자기 극에 달한 비명 소리 들리며 정적이 찾아온다.
상주는 벌떡 일어나 산모의 방 앞으로 달려가고, 남복은 평상에서 벌떡 일어난다.
잠시 후,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며 아줌마가 나온다.

상주　　났어? 뭔가?
아줌마　　꼬추요 꼬추.
상주　　아이구, 욕 봤네.
아줌마　　장군감이에요. 아주 그냥 (팔뚝 흔들며) 꼬추가 이만해.

남복이 마치 자기 애기를 난 것처럼 싱글벙글 하다가 원빈이, 혹은 영애 생각이 난 듯 표정이 어두워진다.

53. 초가집 앞 / D

탱크 포신에는 토끼 가죽, 말린 생선, 각종 나물 등이 걸려있고, 탱크 지붕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호박과 고추와 각종 야채들이 올려져 있고 태극기까지 꽂혀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나와 떠나는 남복을 환송해준다.

54. 산성, 대대장 막사 / D

최중령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통신을 하고 있다.

최중령　어제 11시경에 다녀갔습니다.
...예, 비문 수령 했습니다.
...저희가요? ...저희도 지금 병력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성.
(무전기 내리고 참모에게) 일개분대 차출해서 비문 필사한 다음 삼일칠 포대로 보내.

최중령이 담배에 불을 붙인다.

최중령　이새끼들은 우편배달 하나 못하고 뭐 하는 것들이야?

55. 탱크 안 / D

남복이 물을 마시고 길게 트림을 한다.
영광은 배고픔과 갈증에 입술이 하얗게 타들어가서 아주 죽을 맛이다.
남복을 돌아보고는,

영광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아니되겠슴까?
남복　(보란듯이 혼자 마시고) 얌마, 인민군.
영광　물 좀 주시라요.
남복　넌 이대로 끌려가면 작살 나. 우리가 널 그냥 냅둘 사람으로 보여?
영광　공갈포 날리지 말라요.
남복　우리가 공산당여? 공갈포 날리게.
지금이라두 비문 내노면 내가 앗쌀하게 귀순한 걸루다 처리해 줄게.
넘마 탱크 데리고 귀순하면 아주 그냥 왓다여 임마.

영광, 마음이 살짝 동하는 듯 뒤를 돌아본다.
남복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떡밥을 확 뿌린다.

남복　귀순만 해 봐. 훈장만 주나? 상금도 주지. 미국 딸라루다가.
너 미제는 똥두 좋은 거 알지?

영광, 심란한 마음으로 부적을 바라보는데, 남복이 수통을 내민다.

님복　　비문만 내노면 내가 중간에서 앗쌀하게 해줄게, 응?

마음이 동하는 듯 수통을 받는 영광이.

남복　　아까 때린 건 내가 마음적으로다가 상당히 미안햐.
(영광이 우물쭈물한다) 마셔.
(한 모금 하려다 다시 고민하는데) 남자답게 한잔 쭉 하고 풀자구.
(재촉한다) 어여, 쭈욱~

부적과 수통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을 마실 듯 말 듯... 안마실 듯 말 듯... 계속 갈등을 하는 영광. 남복은 복장이 터져 버럭 소리를 지른다.

남복　　아 그냥 확 처마셔!

영광이 결국 수통을 내려놓는다.

영광　　다 죽었시요... 전쟁통에 폭격 맞고... 첫째 형이랑, 둘째 형이랑.
남복　　가족들 한두 명 안 죽은 집이 어딨어.
영광　　셋째랑 넷째 형도 같이 죽었습네다.
다섯째 형이랑 막내 형은 군대 가서 연락 끊어진지 1년 됐시요...

코를 훌쩍이는 영광. 듣고 보니 남복도 속상한지라 잠시 침묵이 흐른다.

영광　　아들 일곱에 나 하나 살아있는데...
불쌍한 우리 오마니 혼자 두고 어케 귀순합네까...
남복　　...마셔 임마.
영광　　됐시요.
남복　　됐으니께 그냥 처마시라고.
영광　　(고민하다 수통 집으며) 고맙습네다.

영광이 막 물을 마시려는데, 폭음과 함께 탱크가 휘청이며 수통을 놓친다.

남복　　뭐야!
영광　　뭡네까?

이어지는 전투기 소리와 함께 관측 사이트로 멀리서 선회 하는 전투기가 보인다.
사색이 된 영광과 남복.

영광　　저, 종간나...
남복　　염병허고!

<인서트> 전투기 시점

무스탕 전투기 시점으로 저 아래 폴폴거리며 지나가는 탱크가 보인다.

남복이 영광이에게 총을 겨눈다.

남복　　인나, 빨리 안인나?

56. 들판 : 탱크와 전투기의 추격전 / D

■ 탱크 밖

영광이 해치를 열고 나오더니, 포탑에 꽂힌 태극기를 뽑아들고 큰소리로 외친다.

영광　　쏘지 마시라요~ 같은 편입니다~
남복　　(안에서 총 겨눈 채) 더 크게~
영광　　쏘지 마시라요~
남복　　더 흔들어~
영광　　(태극기 크게 흔들며) 같은 편이라고 이 양키 새끼야~

말이 끝나자마자 탱크 위로 기관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진다.

■ 탱크 안

영광이 탱크 안으로 떨어지면서 남복이를 깔아뭉갠다.
남복이 총을 놓치고, 영광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을 향해 몸을 날린다.
간발의 차이로 총을 먼저 잡은 영광이가 개머리판으로 남복이를 돌려 치는데, 남복이 허리를 굽혀 피한다.

■ 전투기 / 탱크 안 교차

전투기가 마지막 남은 포탄을 떨어뜨린다.
자유낙하를 하며 탱크 포탑 정중앙으로 떨어지는 포탄.

같은 시간, 남복은 안간힘을 다 해 영광을 밀친다.
영광이 조종석으로 넘어져 조종간이 밀리고, 탱크는 90도 턴을 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포탄을 비켜간다.
폭음과 함께 탱크 안으로 불길이 들어오고, 남복과 영광은 다시 바닥에 넘어진다.
탱크 위에 쌓여있던 먹을 것들이 우르르 쏟아지고, 탱크 견인줄에 묶인 짚자는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잘도 끌려온다.

남복이 소총을 드는데, 영광이가 포탄피를 집어던진다.
남복이 미처 총을 쏘지 못하고 머리에 포탄피를 얻어맞고 기절한다.
영광이 관측사이트를 보면, 전투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
겁도 나고, 정신도 없고... 영광이 눈물 반 콧물 반 얼굴로 기관총사수 자리에 앉는다.

영광　　오마니~ 살려주시라요~ 으아아아~

웃음 섞인 고함을 지르며 사격을 하는 영광.
처음에 잘 피하던 전투기가 꽁무니에 총탄을 맞고는 검은 연기를 뿜어낸다.
영광은 자기가 쏴놓고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점점 고도가 낮아지는 전투기, 비틀거리며 선회를 하더니 탱크 전방으로 불시착한다.
다시 떠오르려고 속도를 내지만 이륙을 하지 못하는 전투기...
영광이, 힘 받았다.

영광　　뒈져보라, 민족의 원쑤!

영광은 흥분과 희열에 들떠 미친 듯이 기관총을 쏴댄다.

■ 탱크 밖
탱크와 전투기의 추격전이 시작된다.
불시착한 전투기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고, 뒤로는 탱크가 기관총을 쏘며 추격을 한다.
무수한 총탄이 전투기 날개를 뚫고 지나간다.

■ 탱크 안
기관총탄이 바닥난다. 허둥대며 남은 탄을 찾지만 모두 빈 상자 뿐...
영광이 조종석으로 옮겨 앉아 속도를 최대로 올린다.

영광　　무스땅만 잡으믄 영웅 칭호 주렁주렁 다는거이야...

■ 추격전
전투기는 엔진이 꺼질 듯 말 듯 푸르르거리며 굴러가고, 탱크는 점점 가까워진다.
뒤를 바라보며 잔뜩 겁에 질린 미군 파일럿.
탱크와 간격을 넓혔다 좁혔다,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다 저쪽으로 틀었다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는 전투기와 탱크.

■ 탱크 안
관측 사이트 바로 앞으로 전투기 꽁무니가 보이지만 탱크는 총탄도 떨어지고 휘어진 포신 때문에 포도 쏠 수 없다.
완전 비무장인 탱크가 전투기를 잡을 요량이 전무해 보이는데,

■ 추격전
미군 조종사가 조종간을 잡아당기면 전투기가 조금 떴다가 내려앉는다.
탱크는 바짝 따라왔고, 비행기는 도약을 하기 위해 애쓴다.
이번에는 전투기가 조금 더 높이 날아올랐다가 떨어진다.
한 번만 더 시도하면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조종사가 다시 조종간을 잡아당기고, 비행기는 안간힘을 다 해 도약한다.

탱크 포탑 높이로 날아오르는 전투기, 그대로 날아가나 싶은데,
탱크 안, 영광이도 레버를 힘차게 잡아당긴다.

영광　　가자, 혁명의 철마여!

포신이 야구 배트 휘두르듯 한 바퀴 돌아 전투기 꽁무니를 후려친다.
발기되어 솟구친 포신 끝에 맞아 꼬리날개 부분이 반파되며 휘청거리는 전투기.
영광이는 전투기가 솟아오를 때마다 포신을 휘둘러 떨어뜨린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전투기를 생포할 수 있어 보이는데,
전투기 진행방향 앞쪽으로 절벽이 보인다.

■ 탱크 안
남복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다.
영광이는 미친놈처럼 웃으며 전투기 사냥에 여념이 없다.
총을 집어 영광이를 겨누는 남복.
방아쇠를 막 당기려는데,

57. 벼랑 끝 / D

■ 탱크 밖
가까스로 탱크 포신의 공격을 피해 떠올랐던 전투기가 갑자기 화면 아래쪽으로 사라진다.
전투기가 없어지자 급브레이크를 잡는 탱크.

■ 탱크 안
탱크가 급정거를 하자 남복이가 앞으로 쏠리면서 영광이 위로 넘어진다.

■ 탱크 밖
탱크는 가까스로 멈추기 했지만 속도에 밀려 벼랑 끝에 반 쯤 걸친다.
탱크는 뒷꽁무니가 천천히 들리면서 벼랑 아래로 기울어지고,
전투기는 낭떠러지로 아래로 떨어지다가 무수한 양의 검은 연기를 토해내면서 위태롭게 날아올라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춘다.

■ 탱크 안
조종석에 뒤엉켜있는 남복과 영광이 소스라치게 놀란다.

영광　　으아아~
남복　　떨어진다~

남복과 영광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이는데,

■ 탱크 밖

벼랑 아래로 떨어지던 탱크가 갑자기 멈춘다.
보면 꽁무니에 매달린 짚차가 바위 사이에 껴있고, 팽팽한 견인줄이 간신히 탱크를 잡아주고 있다.

■ 탱크 안
탱크가 고정되자 영광이 탈출을 시도한다.
영광을 잡아끌고 먼저 나가려는 남복,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다.

■ 탱크 밖
남복과 영광이 싸울수록 탱크는 벼랑 끝에서 간당간당하고, 짚차에 걸린 줄이 미끄러진다.
헤치가 열리고 영광이 먼저 밖으로 나온다.
땅에 착지하는 순간 총을 뽑아 몸을 돌리는데 남복이 그 위로 덮친다.
권총을 떨어뜨린 채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며 기술 없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겨우 일어나 대치하는 두 사람.
둘 사이에 권총이 놓여있지만 서로 섣불리 다가서지 못한다.
둘 다 움찔거리며 기회를 엿보는 한 편, 틈틈이 탱크를 바라본다.

영광　　날래 끝내자우. 땅끄 떨어지가서.
남복　　뎀벼 새꺄. 비문 떨어지기 전에.

틈을 보던 남복과 영광이 맞붙으려는 순간 짚차에 묶였던 견인줄이 풀리며 탱크가 휘청인다.
놀라 와이어 줄을 잡는 남복과 영광.
줄은 다행이 조금 풀리다가 다시 짚차에 고정되고, 끌려가던 남복과 영광도 멈춘다.
탱크가 어찌 될까봐, 탱크 안에 실린 비문이 없어질까봐 줄을 놓지 못하는 남복과 영광.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줄을 놓고 다시 싸울 기세로 대치한다.
팽팽한 견인줄이 둘 사이를 가르고 있다.
탱크가 걱정스러워 맘놓고 싸우지도 못하는 두 사람, 땡볕의 더위 아래 땀만 쏟아낸다.

남복　　얌마, 인민군. 너 탱크 냅두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여?
영광　　바로 총살인지 모르고 물어보간?
　　땅끄병은 둘 중 하나야. 땅끄랑 같이 뒈지던지, 땅끄랑 같이 돌아가던지.
남복　　그 말이 내 말여 임마. 나도 비문 안가져 가면 총살여.
영광　　하고 싶은 말이 뭐이네?
남복　　비문, 탱크 안에 있지?
영광　　나는 모른다.
남복　　싸움은 쫌 있다 하고 우선 탱크부터 끌어올리는 게 어떠.
영광　　...휴전 하자는 말이네?
남복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싸움은 나중에 하자는 얘기여.
영광　　비열한 국방군 새끼, 중도에 딴 맘 먹고

남복　　(말 자른다) 정신 차려 새꺄. 너나 나나 목숨 걸린 일여.

말없이 바라보는 두 사람.
탱크가 다시 휘청이고,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줄을 잡는다.

영광　　흑시... 총 같은 거 숨겨놓고...
남복　　숨겨 놀 총 있었으면 벌써 쏴죽였어. 힘이나 줘 새꺄.
영광　　동무나 가열차게 땅기라.

둘이 사력을 다 해 탱크를 잡아당긴다.

<시간경과>
여전히 죽을힘을 대해 탱크를 끌어올리는 두 사람.

<시간경과>
남복과 영광이 주저앉아있다.
둘 다 손바닥이 벗겨져 피가 비친다.
권총은 그들과 댓 걸음 떨어진 곳에 있고, 남복과 영광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권총을 바라보고 있다.
남복이 권총에서 시선을 거두고 먼 하늘을 본다.

남복　　좀 생각적으로 생각해야겠다...

58. 소나무 숲 / D

나란히 오솔길을 걸어가는 남복과 영광. 서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영광　　이 길이 그 길 맞네?
남복　　뙤놈 빤스를 삶아먹었나, 의심은.
영광　　날래 대답하라. 맞게 가는 거이가?
남복　　보믄 몰러? 일루 쭉~ 가서 저짝서 저짝으루 빠꾸 틀믄 거기 아녀.
영광　　지가 가자케놓고 왜 개승질이네?
남복　　새끼가 혓바닥이 반토막인가. 내가 너보다 한참 형여 임마.
영광　　적군끼리 형 동생이 어딨간? 총 든 놈이 형이지.
남복　　한 마디도 안진다. 그러니 말 많은 빨갱이에 말 잘하는 공산당이라고 하지.
영광　　우리래 체계적 사상학습으로 정연한 논리를 갖추어

남복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자 놀라 경계태세를 갖추는 남복.

영광　　뭐이가! 한 판 붙어보가서?
남복　　...이 길이 아닌갑다.

이 쪽... 저 쪽... 머리가 복잡한지 눈을 감고 손으로 방향을 헤아리다가 눈을 뜨는 남복.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59. 도라지밭 / D

매미 소리는 시끄럽고, 산새소리는 정겹다.
선들바람에 꽃잎은 하늘거리고 고추잠자리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닌다.
고추잠자리에 시선을 빼앗긴 남복과 영광.
걸음을 멈추고 유영하는 잠자리떼를 바라본다.

60. 콩밭 / D

호미질을 하던 영광의 노모가 잠시 일손을 놓고 고추잠자리를 구경한다.

61. 남복의 오두막 / D

마당 평상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남복의 부인.
부인 주위에도 잠자리떼가 맴돌고 있다.

62. 도라지밭 / D

잠자리떼를 바라보는 영광과 남복.
상두꾼의 상엿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온다.

63. 초가마을 앞 / D

초라한 꽃상여가 마을길을 벗어난다.
종을 치며 선창을 잡는 상두꾼(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잔하고, 입을 맞춰 후창하는 상여꾼의 목소리는 구슬프다.
상여 뒤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따라 나온다.

할아버지 **북망산천 머다더니 문전산이 그곳일세**
인제가면 언제오나 돌아올날 일러보자
(어~호 ~어어 ~호 어이가리 넘차 ~어 ~호)

동방화개 춘풍시에 꽃피거든 내가오지
말머리에 뿔이나면 이세상에 다시올까
(어~호 ~어어 ~호 어이가리 넘차 ~어 ~호)

멀리서 걸어오는 남복과 영광을 발견한 할아버지. 난감한 표정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며 상엿소리를 바꿔서 부른다.
상주와 상여꾼들은 선창 가사가 바뀌자 금새 상황을 알아차린다.

할아버지 **이거정말 난리났네 아까그놈 또오신다.**
(어~호 ~어어 ~호 어이가리 넘차 ~어 ~호)

어느놈이 잡혔는지 너무멀어 안보이네
(어~호 ~어어 ~호 어이가리 넘차 ~어 ~호)

이거정말 난감할세 어찌하면 좋을까나
(어~호 ~어어 ~호 어이가리 넘차 ~어 ~호)

이제우리 다죽었네 저게과연 뭔일인고
(어~호 ~어어 ~호 어이가리 넘차 ~어 ~호)

딸랑딸랑, 종을 잘게 치자 상여꾼들이 상여를 내려놓는다.
할아버지가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다.
남복과 영광이 상여 앞에 서있다.
누가 누구에게 잡힌 것이 아니니 누구 편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영광 **동무들...**
남복 **...도와주십쇼.**

64. 벼랑 끝 / D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견인줄에 달라붙어 탱크를 끌어올린다.
할아버지는 종을 치며 힘차게 선창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맞춰 후창을 하는데, 상엿소리보다 더 힘차고 빠르다.

할아버지 **이걸 빼야 집에 가지!**
(허잇, 허이야~)
빨리 해야 살아 남지
(허잇, 허이야~)
흰머리를 뽑아내듯
(허잇, 허이야~)

박자는 갈수록 빨라지고, 탱크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할아버지 **머슴놈이 마님보듯**
(허잇, 허이야~)

십년과부 바람나듯
(허잇, 허이야~)

빠른 속도로 종을 흔드는 할아버지.
미동도 않을 것 같았던 탱크가 마침내 평지에 자리를 잡는다.
남복이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에 겨워 주저앉았지만 얼굴은 기쁨 가득이다.

<인서트> 꽃상여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여 위로 남복이 목소리 들린다.
"욕 보셨어요. 살펴가셔요~ 존 일 하셨어요~"
"잘 가시라요~"
남복이 목소리도 들린다.

남복이와 영광이가 환하게 웃으며 멀어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영광이는 손을 흔드는 틈틈이 권총을 바라본다.
마을 사람들 사라지자 흡족한 얼굴로 돌아서는 남복, 표정이 굳는다.
보면 영광이가 권총을 겨누고 있다.

남복 암마, 너 왜그랴... 이건 약속이 틀리잖어.
영광 니 입으로 말하지 않아서. 쫌 있다 다시 싸우자고.
남복 합의해서 휴전 했으믄 싸움도 합의 보고 시작하는 거여. 법적으로.
영광 주댕이 닥치라!
비열한 국방군 종간나새끼, 자랑찬 인민전사를 쌍수 들어 환영하지 못할망정, 뭐래? 귀순?
남복 왜 다 지난 얘기를 끄내고 그랴.
총 내리구, 넌 니꺼 가지구 가고, 난 내거 가지구 가구, 응?
영광 개 풀뜯어 처먹는 소릴 말라. 땅고도 내거고 비문도 내거이니.
동무래 살려주는 걸 영광으로 알고 가서 비문 해독이나 하라.
남복 뭘 알아야 해독을 하든 해석을 하든

총을 쏘는 영광. 남복 발치에 총탄이 박힌다.
남복이 두 손을 번쩍 든다.
돌풍이 불어와 흙먼지가 날린다.

65. 억새밭 / D / 비

■ 탱크 밖
먹구름이 퍼지며 서산에 걸린 해를 가린다.
바람을 맞은 억새들은 서걱 서걱 소리를 내며 몸부림치고, 구름 속에서 천둥이 운다.
탱크가 억새밭을 지나간다.
탱크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 탱크 안

남복이는 포탄 투입구 앞에 손이 뒤로 묶여있고, 영광이는 조종석에 앉아있다.
영광이가 한껏 기분 좋은 얼굴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른다.

영광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면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여 잘자라
(다음 가사를 몰라 콧노래 흥얼거리다 남복을 바라본다)
남조선이 다른 건 몰라도 노래 하나는 옹골지게 만든다 야.
(다시 콧노래 흥얼거리다 남복에게)
2절은 뭐이가.

남복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속에 사라진 전우야.

남복이는 노래를 부르고 영광이는 콧노래로 따라부른다.
남복은 노래를 불러주는 내내 영광이 눈치를 보며 손을 부지런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밧줄이 포탄 투입구 손잡이에 쓸리며 올이 풀려 나간다.

66. 초원 / N / 비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초원을 가로지르는 탱크

■ 탱크 안

여전히 밧줄을 자르는 남복. 이제 거의 다 잘렸으니 구석에 놓인 소총만 잡으면 전세 역전이다. 영광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돌아보자 동작을 멈추는 남복.

영광　뭘 그리 꼼지락 거리네?

남복　운전이나 조심햐. 여긴 싹 다 지뢰밭이여

영광　니 걱정이나 하라. 내래 우리 장군님 가호를 입어 끄떡없을 거이니.

남복　장군 같은 소리 하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장군은 이순신 장군님밖에 없어 임마.

영광　간나새끼! 니가 우리 장군님의 혁혁하고도 영롱한 기품을 몰라서 그러는 거이야.

남복　기품은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왓다여. 그냥 박사도 아니고 미국 박사님. 넘마 미국 알어?

영광　우리 장군님께서는 가랑잎 하나로 압록강을 건너시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어 일본군을 무찌르신 항일 무장 투쟁의 전설이네. 이 종간나야.

남복　하이구~ 압록강? 우리 이박사님은 나룻배 하나 타고 하와이서부터 일본까

지 태평양 건너서 쳐들어가신 분여, 그 분이. 너 하와이 알어?

영광 하와이가 대수네? 우리 뒤엔 쏘련도 있다이.

남복 우린 뒤에 뭐 미국 없어?

영광 똥뀌는 소리 말라. 쏘련이 세계 최강이야.

남복 미국이 세계적으루다가 최고여 이 등신아.

영광 쌍간나 새끼. (조종간 놓고 일어선다) 우리 쏘련이 센지 니덜 미국이 쎈지 한 번 붙어 보가서?

남복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는데 남복이 피하며 영광의 낭심을 올려친다.
이미 밧줄을 다 잘라낸 것이다.
영광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 탱크 안, 밖 교차

번개가 치고, 탱크 진행방향 정면에 묻혀있는 대전차 지뢰가 보인다.
영광이가 계속 얻어맞으며 조종석으로 밀려나가 조종간을 밀친다.
막 지뢰를 밟으려던 탱크가 방향을 바꾸고, 포신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 탱크 안, 밖

격투를 벌이다가 소총을 집어 드는 남복.
영광이가 달려들어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탱크는 대전차 지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방향을 바꾸고, 포신이 돌았다 멈췄다를 반복한다.
마침내 남복이는 권총을, 영광이는 소총을 잡는데...

■ 탱크 안

동시에 방아쇠를 당기는 둘.
영광의 총탄이 남복을 빗나가 탱크 벽면에 튕겼다가 자신의 허벅지에 박힌다.
남복의 총알도 영광을 스쳐 탱크 벽면을 타고 한 바퀴 돌아 자신의 어깨에 박힌다. 서로 자기가 쏜 총에 맞은 것이다.
남복이 넘어지며 조종간을 밀치고, 탱크가 멈춘다.

■ 탱크 밖

비는 거세고, 천둥과 번개가 잇따른다.

■ 탱크 안

고통을 참으며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두 사람.
누구도 먼저 총을 쏘지 못하는 대치 상태가 된다.
흘러내린 피가 탱크 바닥을 적시고, 두 사람은 분노의 시선만 교환한다.
탱크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번개가 칠 때마다 관측 사이트로 밝은 빛이 들어왔다 사라진다.

67. 포병대대, 본부 / N / 비

천막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시끄럽다.
유중령이 눈을 똑바로 뜨고 노이즈만 들리는 무전기 앞을 지키고 서 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참모　　수색 이틀째입니다.
반경 10키로메다 이내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만 철수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중령은 미동도 않고 무전기만 노려볼 뿐이다.

68. 개활지 근처 / N / 비

■ 탱크 안

남복과 영광은 여전히 총구를 겨누고 대치중이다.
영광이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울음이 나오려 하지만 코를 훌쩍이며 애써 참는다.

남복　　질질 짜지 말고 그만 항복 햐.
영광　　(울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울긴 뉘가 우네 이 개간나야.
내래 만신님이 돌봐주니께니 뭬져도 안뭬진다이.
영광　　나두 우리 애기 볼 때까지는 죽어도 안죽어.

부상의 고통 때문에 서로를 겨눈 총구가 떨리고 있다.

■ 탱크 밖

사납던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걷히며 달이 뜬다.

■ 탱크 안

관측 사이트를 통해 달빛이 스며든다.
남복과 영광 둘 다 지쳐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었고 목소리도 힘이 빠졌다.

남복　　너 아까 애기 낳는 것 봤지? 애 날 때 부모 맘이 어떤지 알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읎나, 누구한테 해꼬지 한 거 읎나... 그런 걸로 벌 받아서 애기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게 부모 맘여.
사람은 다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는 거여 임마. 알어?
개죽음 당하지 말고 그만 총 내려.
영광　　(총 고쳐 잡는다) 개소리 집어치고 손 들라.
남복　　(권총 굳게 잡는다) 이건 뭐 총 아녀?
영광　　그럼 이건 작대기네?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두 사람.

69. 포병대대 진지 / N

참모가 유중령 눈치를 보다가 살며시 철모를 들고 땀을 닦아낸다.

유중령　벗고 싶음 벗으라.
참모　아닙니다.
유중령　보라,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참모　서울 수복 때... 아들 죽었습니다.
유중령　기렇구만...
내래 남한에 돈 벌러 왔다가 길이 멕혀 못올라가지 않았난.
긴데 국군 장교가 된 걸 어케 알았는지 죽창으로 가족들을 몰살시켰댔지.
마누라, 자식새끼들, 아바이, 오마니...
기래서, 미안해서리, 철모를 못 벗지 않간.
내래 계속 싸우고 있다고, 언제든지 돌격할 준비가 됐다고...
이제 고향이 코앞이니 가서 무덤이라도 만들어 주겠다고...
참모　...반경 15Km까지 수색범위 넓히겠습니다.

참모가 무전기를 든다.

70. 초원 / N

■ 탱크 밖

달이 중천에 떠있고, 탱크 위로 풀벌레들이 기어오른다.

■ 탱크 안

남복과 영광은 총을 들고 있기조차 힘들어 보인다.
사이트로 스며든 달빛이 부적을 비춘다. 부적을 바라보는 영광...

영광　국방군 동무.
남복　말 끝마다 동무 동무... 주댕이를 확 쏴 버릴까부다.
영광　총 맞아본 적 있네?
남복　당연하지 임마. 내가 이래뵈도 역전의 용사여.
영광　이 정도 부상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이네?
남복　크건 작건 피 빠져나가면 죽는 거여.
영광　진짜 죽는 거이가? 이러고 있다가?
남복　총 맞구 살길 바라?

잠시 침묵을 지키는 두 사람... 영광이가 코를 훌쩍인다.

영광　　우리 오마니가 나 낳기 전에 딸이믄 좋겠다고 기러셨는데...
내가 고추 달고 나와서 오마니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아난?...
근데 인차 형 여섯 다 죽고 나 하나 딸랑 남아서...
내래 이 원수를 다 못 갚고... 쌍...

영광이가 복받치는 울음을 간신히 누르고 있다.
듣고 있는 남복이도 속상하다.

남복　　내가 그런 거 아냐 임마.
영광　　뭐이가 말이네?
남복　　그 폭격말여. 니네 형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영광　　...기러믄 동무랑 나랑 직접적으로 원수 관계도 아닌데...

영광이가 코를 훌쩍거리며 바라본다.
남복이도 그저 바라만 보는데,

영광　　잠깐... 휴전...하지 않가서?

71. 소나무 숲 / N

일단의 국군 병사들이 지도를 펼치고 랜턴을 비춘 채 방향을 가늠한다.
말도 없이 수신호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 뭔가 특공대스러운 냄새를 풍긴다.
지도를 접고 다시 어둠 속으로 잠행하는 국군들.
그들 중간에 비문 가방을 멘 병사가 보인다.

72. 초원 / N

■ 탱크 안
둘은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남복　　제일 먼저 탄창을 빼는거여. 다음엔 약실에 있는 총알, 다음엔 총 분해하고
영광　　나만? 내가 먼저?
남복　　동시적으루다가 하는 거지 임마. 어린노무 새끼가 의심은.
...그 담엔 둘이 밖으로 나가는 거여.
영광　　누가 먼저 나가는 거이가?
남복　　니가 먼저 나가야지. 내가 나간 다음에 니가 탱크 몰고 도망가믄 나만 좆되는 거 아녀. 비문도 못찾고.
영광　　내가 나간 다음에 동무가 땅끄 몰고 가믄 나는 어카네?
남복　　나는 탱크 몰 줄 모르잖어.
영광　　나는 뭐 알고 몰았나?

남복　(성질난다) 하지 마! 휴전 하지 마 시팔!
영광　...같이 나가는 건 어떠네?

영광과 남복, 동시에 헤치를 본다. 보고 나니 헤치가 두 개다.

남복　좋아. 그럼 시작 하믄 시작한다.
...휴전!

둘이 눈치를 보며 탄창을 빼려는데, 누구도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서로 눈짓과 턱짓으로 빨리 탄창을 빼라며 종용하는 두 사람.

남복　왜 안 빼?
영광　내가 먼저 빼면 쏠라 그러는 거 아니네?
남복　옘병... 좋아. 난 내 애기 이름을 걸고 탄창 뺀다.
영광　애기 이름이 뭐이가?
남복　봤으야 알지... 원빈 아니믄 영애겄지.
영광　기럼 내래 오마니 이름을 걸갔어.
남복　오마니 이름이 뭐이가?
영광　아랫말 작은 순이...
남복　좋아. 그럼 다시 시작한다.
...휴전!
영광　휴전!

입술을 깨물며 탄창을 빼는 남복.
하지만 영광이는 탄창을 빼지 않았다.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 총을 겨누는 남복.

남복　저 개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씨발놈. 니네 오마니 씨, 아랫말 작은 순이
영광　(당황해서) 니보라, 이거이, 이기, 탄창 어케 빼는 거네?
남복　눌러, 그 옆에, 아니 거기 말고 더 위에, 그래 거기, 눌러! 빨리!

영광이 탄창 분리 버튼을 간신히 찾아 누른다.
바닥에 떨어지는 탄창. 영광과 남복 둘 다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영광　내래 양키놈들 소총은 처음이라...
남복　시끄러. 다음은 약실에 총알 뺀다. 잡어.

남복과 영광, 각각 권총 덮개와 소총 장전 손잡이를 잡는다.

남복　땡기라고 하면 땡겨. 알았지?
(영광 고개 끄덕이면) 땡기라면 진짜 땡겨야 된다. 응?
영광　비열하게 굴지 말고 동무나 땡기라.

남복　　셋에 뗑기는 거여... 하나, 둘... 땡겨!

둘 다 동시에 약실의 총알을 뺀다.
총에서 튕겨 나와 바닥에 떨어지는 총알 두 개.
어찌됐건 휴전을 향한 큰 산은 넘었다. 두 사람 모두 길게 숨을 내쉰다.

남복　　다음은, 총 분해. 난 덮개 먼저, 넌 총열 먼저.
　　가늠자 옆에 똥그란 거 보이지? 눌러! 하면 눌러.
영광　　국방군 동무.
남복　　또 왜?
영광　　...내래 믿고 눌루가써.

영광이 걸쇠를 누르자 개머리판과 총열이 분리되어 'ㄱ'자로 꺾이고, 남복도 권총 덮개를 제거한다.
서로 눈짓을 하며 부속품을 하나씩 빼 탱크 이곳저곳으로 버리는 두 사람.
분해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속을 던지는 두 사람.

■ 탱크 밖
탱크 헤치가 영광과 남복이 나온다.
부상 때문에 간신히 탱크를 빠져나온 두 사람이 탱크 지붕 위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73. 억새밭 / N

포병 관측병들이 사주경계를 하며 나타난다.
국군 시체를 보고 멈추는 관측병.
랜턴을 켜고 바닥을 유심히 살피더니 캐터필러 자국을 발견하고 무전기를 든다.

관측병　　여기는 S하나, S하나. 너구리 발자국 찾았다 오바.

74. 초원 / N

■ 탱크 밖
남복과 영광이 캐터필러에 기대앉아 각자의 상처 부위에 압박 붕대를 묶고 있다.
수통의 물을 나눠 마시는 두 사람.
서로 말은 없고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데, 영광이 허벅지를 묶었던 붕대를 들춰보면 아직도 피가 나온다.

영광　　동무. 총알 빼는 방법 아네?
남복　　총알 그까이거, 손 쑥 집어넣어서 총알 딱 잡고 쏙 뽑아내믄 끝나는 거지머.

영광　　...
남복　　...
영광　　끝이네?
남복　　끝이지.
영광　　기럼... 기렇게 빼면 되지 않가서?
남복　　미련 곰탱이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어차피 소독 못하면 빼내나 마나여
영광　　술로 소독하면 되지 않가서? 아까 인민들이 보급해 주더만. 기다리라.

일어서는 영광. 힘겹게 탱크 위로 올라간다.
홀로 남은 남복, 말도 안 된다는 듯 바라보다 갑자기 얼굴이 굳으며 일어선다.

남복　　저게 어딜 혼자 토낄라고.

힘들게 탱크 위로 올라가는 남복.

■ 탱크 안
남복과 영광이 마주앉아 있다.
그들 사이에 PET병 크기의 大병에 담긴 뱀술 10여 병이 놓여있다.
물끄러미 뱀술을 바라보는 두 사람.

영광　　독사... 아니네?
남복　　...먹구 죽으라는 거여 머여...

남복이 결심한 듯 용기를 내서 한 병 딴 다음 상처에 붓는다.
따라하는 영광, 술을 쏟다가 허벅지에 뱀이 떨어지자 기겁을 한다.
상처 부위에 손을 집어넣는 남복... 영광도 따라하는데, 둘 다 손가락 한 마디도 들어가지 않아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포기한다.

영광　　으... 아...
남복　　아으~... 환장하겠네...

남복이 상처부위를 누르며 벽에 머리를 기댄다.

영광　　고 술 한 잔 하면 고통이래 절반치기로 줄어들 거인데...
남복　　존 생각이다. 너부터 마셔라.
영광　　개수작 떨지 말라. 내래 술 먹고 뻗으면 어케 할라는 것 다 안다이.
남복　　알았다. 알았어. 너 한 모금, 나 한 모금. 똑같이. 됐냐?
영광　　우리 인민군이래 천하에 영웅호걸이니께니 술로 어떡할 생각은 애초에 집어치라.
남복　　장하다. 처마셔라.

남복이 술을 마시고 영광에게 턱짓을 한다.
영광이도 술을 마시고, 그렇게 둘이 똑같이 술병을 비우기 시작한다.

<점프>
죽을 정도로 인상을 쓰는 남복...
입을 쩍 벌리고 거칠게 숨을 쉬는 영광...
둘 다 손가락으로 상처 부위를 헤집고 총알을 빼는 중이다.
먼저 총알을 빼내는 남복. 뒤이어 영광이도 총알을 찾아낸다.
고통을 참으려 벌컥벌컥 술을 들이킨 다음 상처에 술을 쏟아 붓는 두 사람.
그리고는 빼낸 총알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웃는데, 이미 술에 취해 눈이 풀렸다.
바닥에는 빈 술병 너댓 개가 굴러다닌다.

75. 포병대대, 진지 / N

유중령이 텅 빈 포진지를 순찰하고 있다.
급히 뛰어오는 참모.

참모　　너구리 발자국 찾았습니다.
유중령　　(막사로 돌아서며) S둘 합류시키고 나머지 병력은 복귀 시키라!
　　싸그리 조져버리갔어.

76. 개활지 / N

각자 술병을 든 채 탱크 포탑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는 두 사람.
둘 다 뭐가 좋은지 베실베실 웃는다.

남복　　술이 천하장사여 어린놈이...
영광　　술을 나이로 마시간?
남복　　어린노무 새끼가... 넘 마 여자랑 자봤어?

에헤헤 웃으며 남복을 쿡 찌르는 영광. 가식 없이 쑥스러움 많은 모습이다.

남복　　못 자봤지? 그지?
영광　　(여전히 베실베실 웃으며) 고만 하라 동무.
남복　　넘 마 아직 풋고추지? 그지?

몸을 베베 꼬며 에헤헤 웃는 영광. 그러다 탱크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남복　　(아래에 대고) 어이 인민군... 인민군 동무~

다시 몸을 베베 꼬는 영광. 남복도 기가 막힌 지 함께 웃는다.
발기된 포신 위로 금방이라도 뚝 떨어질 듯 커다랗고 밝은 보름달이 보인다.
탱크 아래서 영광의 개구진 웃음소리 들린다.
물장구치는 소리가 들린다.

77. 초원 / N

술에 취해 허정거리는 발걸음으로 물고기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는 두 사람.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
남복이는 그래도 열심이고, 영광이는 자리를 뜬다.
잠시 후, 남복이 어스름한 그림자를 보면 영광이 뭔가를 들고 남복을 내리치려는 듯 보인다
남복이 놀라 바라보면, 영광이 탱크 포탄을 머리 위로 들고 서있다.

영광　　남조선 종간나 물고기들!

남복이 서둘러 개울을 빠져나오고, 영광이는 포탄을 집어던진다.
개울가에 바짝 엎드리는 두 사람.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도 포탄은 터지지 않는다.
남복과 영광이 궁금한 얼굴로 고개를 들면,

쾅!
폭음과 함께 물기둥이 올라오고, 그들 머리 위로 물고기들이 쏟아져 내린다.

78. 폐허가 된 마을 / N

일단의 국군 무리들이 마을을 지나가고, 중간에 비문 가방을 맨 병사가 보인다.
그 때, 멀리서 아스라이 폭발음이 들린다.
일제히 그 쪽을 바라보는 국군들...

79. 초원 / N

탱크 아래 모닥불이 피워졌고 먹고 버린 생선과 먹다 남은 생선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남복이와 영광이는 벌렁 누운 채로 술을 마시고 있다.

남복　　니네 동네 달도 저렇게 크냐?
영광　　말 마라 동무. 우리 북조선 달이래 얼마나 장한지, 저~기 산에서 불끈 솟으면, 아이구! 그냥 뚝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쳐다본다이.
남복　　미친놈. 니들이 그래서 공산당여.
영광　　이따~만한 달 아이 봤으면 주둥이 다물라.
남복　　지랄한다. 그 달이 다 저 달이지...

나 집 떠날 때도 달이 저렇게 크게 떴는데...

영광　...동무. 아들이면 좋간? 딸이면 좋간?

남복　그게 뭐가 중요햐. 잘 크구 있으믄 되지... 무사허게... 원빈이믄 더 좋구...

남복이가 술을 들이킨다. 영광이도 따라 마시고...

남복　그나저나 왜 대답을 안하는 거여?

영광　뭘 말이네?

남복　여자랑 자봤어?

영광　에헤헤헤...

다시 몸을 베베 꼬는 영광. 남복도 기가 막힌 지 함께 웃는다.
영광의 노랫소리 들린다.

<점프>
술병을 마이크 삼아 영광이 <비내리는 고모령>을 부르고, 남복이는 술을 홀짝인다. 영광의 노래는 울음이 반이다.

영광　어머님의 손을 놓고 떠나올 때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턱을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웁구나...
(울며 소리 지른다) 오마니~ 쫌만 기달리시라요~

남복　(따라 운다) 여보~

영광　오마니~

영광이 다짜고짜 남복을 덮친다.

영광　왜 폭격했네, 왜에? 왜 우리 형 죽였네 왜에?

남복　왜 쳐들어 왔어, 왜? 야이 개새끼들아~

술에 취한 터라 주먹에 힘도 없고 어설프지만 격정적으로 싸우는 두 사람.
치고받는 싸움도 못하고 둘이 끌어안고 이리저리 굴러다니기만 한다.

남복　죽어 씨, 다 죽어...

영광　오마니~

남복　여보~

영광　혀엉~

남복　원빈아~ 영애야~

둘이 끌어안고 격정적으로 운다.

<시간 경과>
탱크 근처, 남복이와 영광이가 대자로 누워있다.
술병은 모두 비었고, 둘 다 잠에 취해 목소리는 갈라졌다.

남복　　(웅얼웅얼)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밭농사는 다 잡쳤겠네...
영광　　(옹알옹알) 콩밭에 풀이 엄청 났을 거이야...
남복　　외양간 손 보고 오는 건데...
남복　　오마니 혼자 밭 맬라믄 허리 뿌라질 거인데...

목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두 사람. 이내 잠에 빠져든다.

80. 초원 / D

발기된 듯 우뚝 휘어진 포신 끝에 아침 햇살이 머문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술병과, 생선 뼈다귀들과, 뱀술에 담겼던 독사들 위로도 햇살이 내려앉는다.
얼굴에 햇빛이 비치자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나는 남복, 어깨를 휘감는 통증에 동작을 멈춘다. 그러다 탱크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일어선다.
주위를 둘러보고는 잠든 영광이를 발견하고는 더 놀라는 남복.
급히 발치에 있는 큰 돌을 집어 들고 영광이를 내려치려다가 동작을 멈춘다.
아기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잠에 빠져있는 영광, 그의 머리맡에 뒹구는 술병...
남복이 갈등 끝에 돌을 내려놓는데, 메뚜기 한 마리가 영광이 얼굴에 앉는다.
영광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고는 속사포처럼,

영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원수이시자조선로동당총비서이시며조선인민군총사령관이시자...

빠르게 잠꼬대를 하다가 멈추는 영광,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남복을 바라보다가 놀라서 앉은 자세로 뒷걸음을 치다가 막대기 하나를 집어든다.
피식 웃는 남복.

남복　　휴전여.
　　(그래도 경계 풀지 않자) 정신 차려 임마. 형여.

■ 탱크 안
탱크 안으로 들어서는 영광, 바닥에 뒹구는 뱀을 보고 기겁을 하는데, 뒤따라온 남복이 대충 손으로 집어 헤치 밖으로 버린다.
영광이 미적거리는데 남복이 쿡 찌른다.
그래도 여전히 미적거리는 영광이...

남복　　같이 좀 살자. 싸우는 거 지겹지도 않냐?

영광이 할 수 없이 탄 박스를 연다.
그 중 포탄 하나를 들어내는 영광. 그리고는 포탄을 분해한다.
포탄 안에서 나오는 비밀문서...
차마 그냥 내주지 못하는데 남복이 비문을 잡는다.
문서를 사이에 두고 둘이 팽팽히 힘을 주는데,

영광　　동무. 이거이 뭔 내용이네?
남복　　걸 내가 어떻게 알어
영광　　알지도 못하는 걸 게지고 목숨을 거네?
남복　　우리같은 놈들이 언젠 뭘 알구 목숨 걸었어?
영광　　진짜 모르네?
남복　　암호 해독문여. 저짝에서 암호 날리믄 이걸로 뭔 말인지 알아내는 건데, 우리 같은 핫바리들은 봐두 몰러.

영광이 손을 놓고 남복이 비문을 손에 쥔다.

남복　　...간다.
영광　　갈거네?
남복　　가야지...

말만 그렇지 남복이 쉽게 돌아서지 못한다.

남복　　살아 돌아가라... 가서 오마니 모시고 착하게 살어 임마. 다신 쳐들어 오지 말구.
영광　　...동무도 몸 성히 돌아가라. 애들은 애비 없이 크면 괄시받는다이.
남복　　운전이나 잘 햐 임마. 저짝은 싹 다 지뢰밭이니께.

씨익 웃는 남복과 영광.

■ 탱크 밖
육중한 몸체를 굴리며 출발하는 탱크... 흙먼지가 가시면 남복이 서 있다.
멀어지는 탱크를 바라보는 남복.

■ 탱크 안
영광이 운전석을 벗어나 후방사이트로 가서 남복을 바라본다.
자신을 쳐다보는 남복을 사이트를 통해 한참을 바라보는 영광.
영광이 다시 조종석으로 가고, 남복이도 돌아선다.

81. 포병대대, 진지 / D

병력들이 속속 복귀하고 포를 정비하고, 탄약수들은 포 앞에 탄 박스를 수북하게 쌓아놓는

등 분주하다.
유중령은 진지를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독려하느라 바쁘다.

유중령　좌표 받고 3초 이내에 발포 못하믄 싹 다 즉결처분 할거이니 명심하라.
(앞 병사에게) 미리 까노라 간나야.
(앞 병사가 탄 박스 뚜껑을 열어놓는다)
(옆 병사에게) 말뚝 다시 박으라지 않아서!

옆 병사가 포 받침대에 삐죽 튀어나온 쇠말뚝을 다시 박는다.

82. 언덕 위 / D

남복이 작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부상 때문에 몸 움직이기가 수월치 않아 보인다.
돌아보면 영광의 탱크가 멀리서 작은 점이 되어 멀어지고 있다.
피식 웃고는 걸음을 재촉하는 남복.
그러다 멈추더니 다시 탱크를 바라본다.
이 쪽... 저 쪽... 머리가 복잡한지 눈을 감고 손으로 방향을 헤아리다가 눈을 뜨더니 오만 인상을 쓴다.

남복　지뢰 피해가랬더니 지뢰를 찾아댕기고 지랄여 저거.

언덕을 뛰어 내려가는 남복.

83. 개활지 근처, 남복과 영광 교차 / D

느긋하게 탱크를 모는 영광.
카메라, 빠른 속도로 탱크 전방으로 나가면 지뢰지대가 보인다.
간밤의 소나기에 몸체를 드러낸 지뢰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같은 시간, 남복이는 죽을힘을 다해 탱크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
탱크는 점점 지뢰지대로 향하고, 남복이는 달리면서 소리를 지른다.

남복　얌마 인민군~ 거기 지뢰밭여 이 등신아~
스돕~ 지뢰 있다니께~

달리다 넘어지는 남복이. 부상 당한 어깨의 고통이 전신을 타고 흐르는 듯 괴로워 한다.
탱크는 무심히 멀어지고, 남복이도 더 이상 뛸 힘이 남지 않았다.

남복　누가 공산당 아니랄께비 말은 드럽게 안들어 처먹어...

남복이 안타까운 눈으로 탱크를 바라보는데,
황소울음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들리는 남복.

84. 개활지 근처, 황소와 탱크의 추격전 / D

탱크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그 뒤를 따라 남복이 로마 시대 전차병처럼 황소 수레를 몰고 따라가고 있다.

남복　　이랴! 히이랏!

나뭇가지로 사정없이 소 잔등을 치며 속력을 올리는 남복.
성난 황소가 사력을 다해 달리니 속도가 만만치 않아 탱크와 거리가 점점 좁혀진다.
탱크는 지뢰지대로 접어들었다.
대전차 지뢰 하나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영광의 탱크.
황소 수레는 어느덧 탱크 옆으로 바짝 붙었다.

남복　　얌마 인민군, 안 서? 너 죽어, 스라고~

■ 탱크 안
영광이는 태평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조종을 하고 있다.

영광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흥얼 흥얼...

■ 탱크 밖
탱크 앞 전방에 대전차 지뢰가 보인다.
이 방향 그대로라면 앞에 묻혀있는 지뢰를 밟을 것이다.
남복이가 도저히 안되겠는지 탱크를 추월해 앞으로 나간다.

■ 탱크 안
관측사이트로 갑자기 들어오는 남복과 황소 수레.
영광이 급하게 탱크를 세운다.

■ 탱크 밖
조금 더 굴러가다 멈추는 탱크.
지뢰를 밟을까봐 기겁해 입을 벌리는 남복.
캐터필러 앞쪽이 지뢰에 살짝 올라간 채 멈춘다.
헤치가 열리더니 영광이 상반신을 내민다.

영광　　뭐이네?

남복이 겨우 숨을 돌리고 영광이를 바라본다.
아무 말 없이 탱크로 올라가는 남복.
그러더니 다짜고짜 영광이 머리를 쥐어박는다.

남복　　여기 싹 다 지뢰밭이라고 얘기 했어 안했어.
이쪽으로 가면 개갈 안난다구 했어 안했어.
하여튼 말은 겁나게 안 듣는 새끼들여 니들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남복.

85. 초원 / D

사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관측병들.
선두에 선 첨병이 갑자기 주먹을 들고 몸을 낮추면 뒤따르던 병력들이 사방을 경계한다.
관측병 앞으로 먹다 남은 물고기와 모닥불과 캐터필러 자국 등이 보인다.
거기에 다 먹은 뱀술 병도 나뒹굴고...

관측병1　이 새끼들이 탱크 몰고 소풍 왔나.
관측병2　(모닥불 재 냄새를 맡아보고는) 포탄 장약으로 불 피운 것 같습니다.
관측병1　본대에 무전 하고 계속 추격한다.

병력이 다시 이동하고 무전병은 무전기를 든다.

86. 개활지 근처

■ 탱크 안

영광이와 남복이가 각각 조수석과 사수석에 나란히 앉아있다.

남복　　뭐 햐. 빠꾸 안하고.
영광　　나 살리라고 여까지 왔습네까?
남복　　말 놔 임마. 적군끼리 무슨 존댓말은...
영광　　나 살린다고 따라왔네?
남복　　말 노랜다고 금방... 싸가지 없는 새끼.
냅두까 하다가 니네 엄마도 그렇고 임마... 너 기다릴거 아녀.
영광　　어차피 적군인데 죽던 살던 뭔 상관이네?
남복　　시팔... 그만 죽어야지... 지금도 얼매나 많이 죽었어...
이러다간 니네나 우리나 씨도 안남을겨.
영광　　...고맙소 동무.

남복　　동무는 씨, 내가 니 친구여?

영광이가 정말 고마운 얼굴로 바라본다.

■ 탱크 밖
지뢰 바로 앞에 멈춰 섰던 탱크가 후진을 한다.

■ 탱크 안
남복이가 담배를 피워문다.

영광　　동무, 담배는 건강에 해롭소.
남복　　전쟁은 더 해로와 임마. (담배 권한다) 한대 필려?
영광　　땅끄는 금연이오.

피식 웃는 남복. 담배를 집어넣으려는데 영광이 남복 손을 잡는다.

영광　　장군님도 안보시는데...

영광이 담배 하나를 꺼낸다.
불을 붙여주는 남복... 둘이 사이좋게 담배를 핀다.

87. 길게 뻗어있는 길

■ 탱크 밖
탱크가 덜덜거리며 잘도 내려간다.

■ 탱크 안
영광이 급하게 탱크를 정지시킨다.

남복　　뭐여!
영광　　...시팔....

사이트 앞을 힐끔 보는 남복. 놀란다.

■ 탱크 밖
낙오된 듯한 중공군 장교 하나와 사병 하나가 서있는데, 그 중 한 놈은 대전차포를 둘러메고 있다.
중공군 장교가 활짝 웃으며 탱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장교(中)　어이~ 동지!

■ 탱크 안

남복이 다급해졌다.

남복　　뭐 햐? 그냥 가라구!
영광　　아군끼리 신호 안하구 가믄 탈영으로 간주하는 거 모르네?
남복　　탱크가 뭐가 무서워. 그냥 가믄 되지.
영광　　대전차포 안보이네?
남복　　너 씨, 허튼 수작 하는 거 아녀?

남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데,

■ 탱크 밖

중공군 장교는 여전히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장교(中)　동지, 잠깐 나와보시오. 동지.

남복이가 헤치를 열고 나오는데, 군복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다.

장교(中)　반갑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제 66전대 9중요.
남복　　뭐라는 거여,
장교(中)　본대 합류 중인데 어느 방향으로 가시오?
남복　　아는 척 했으니께 그만 가~
　　(남쪽을 가리키며) 우린 일루 쭉 갈거니께. 알았지들?
장교(中)　(같이 남쪽 가리키며) 잘됐소. 우리도 그쪽 방향이오.
남복　　(고개 끄덕이면서) 그려 임마. 짜식, 말귀도 알아듣고 신통방통하네.
장교(中)　랄라이~ 다들 집합. 전차부대와 합류한다. 집합!

길 쪽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장교.
사방에서 한 명 두 명, 서너 명을 넘어 열댓 명이 우르르 나타난다.
남복이는 놀랍고 무서워 탱크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 탱크 안

넋이 나간 남복, 영광은 계속 남복의 눈치를 본다.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중국 노래가 들려온다.

남복　　환장하겄네....
영광　　어카네...
남복　　이게 뭐여 씨발... 뭔 영광을 보겄다고 소 타고 따라와서...

남복이가 울상이 된다.

■ 탱크 밖

십수 명의 중공군들이 바글바글 탱크에 올라타 있다.
목소리도 드높게 중국 인민 혁명가를 부르는 중공군들.
중공군 화면이 망원경 시점으로 전환된다.

88. 길 근처, 태국군 진영 / D

망원경을 내리는 태국군 장교.
코 밑을 긁적긁적 하더니 다시 망원경을 본다.
위로 휘어 올라간 포신을 자세히 관찰하는 태국 장교...
다시 봐도 뭔지 모르겠다는 듯 코 밑을 긁적인다.
수풀 속에 몸을 감췄던 일단의 태국군인들이 나타나며 자막 오른다.

UN군 산하 태국군 진영

장교(泰) 대전차포 준비

태국 병사 하나가 대전차포를 둘러메고 앞으로 나온다.

장교(泰) 적 탱크는 전투 불능상태로 보이니 정확히 캐터필러를 조준하도록.
(병사들 둘러보며) 대전차포 발사를 신호로 전군 사격한다.

태국 병사들이 모두 조준을 한다.

89. 길게 뻗어있는 길, 태국진영 교차 / D

■ 탱크 안

남복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갔다 한다.

남복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녀?
같이 북으로 넘어가자는 거여 뭐여?
영광 주댕이 좀 닥치라. 나도 머리 쓰고 있으니께니.
남복 머리 쓰고 말구 할 게 어딨어? 그냥 털어버리믄 되지.

바락 소리를 지르는 남복. 영광이가 결심한 듯 조종간을 잡는다.

영광 꼭 잡으라 동무...

■ 태국군 진영, 길 교차

대전차포로 탱크를 조준하고 있는 태국군.
태국군 장교가 옆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장교(泰) 셋... 둘... 하나... 발...

발사 명령을 내리는 순간, 탱크가 쿨렁이며 갑자기 속력을 올리고 중공군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그리고는 이내 포탑이 빙글빙글 돌며 남아있던 중공군들을 털어낸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는 탱크.
중공군도 태국군도 의아한 얼굴로 탱크를 바라본다.
태국군 병사가 뒤늦게 대전차포를 발사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나머지 병력들이 집중 사격을 시작한다.

장교(中) 습격이다! 산개하라!

중공군들의 대응사격이 시작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탱크는 저 멀리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90. 개활지 / D

굉음과 함께 탱크가 빠른 속도로 프레임 인 했다가 아웃된다.

■ 탱크 안
영광이가 사력을 다해 조종간을 잡고 있다.
후방 관측사이트로 상황을 살피다 영광에게 오는 남복.
영광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남복 잘 했다, 인민군아!
영광 이렌 쌍. 어디 자랑찬 인민해방전사의 대가리를 희롱하네?

머리를 흔들어 남복의 손을 벗어나려는 영광.
하지만 남복은 집요하게 머리를 쓰다듬고 두드려 준다.

영광 하지 마라니!
남복 어이구, 우리 착한 공산당. 응?

91. 소나무 숲 / D

관측병이 망원경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망원경 시점으로 영광의 탱크가 보인다.
탱크 포탑의 인공기를 확인한 관측병이 무전기를 든다.

92. 포병대대 진지 막사 / D

무전기를 들고 유중령을 바라보는 참모.

참모　　너구리 찾았답니다.
유중령　　잡았어! 이 쥐새끼들. 좌표 불러.

93. 포병대대 진지 / D

각 포 별로 비치된 무전기에서 좌표 불러주는 소리가 들린다.

무전　　하나삼아홉, 둘칠다섯...

사수는 좌표에 따라 포신을 조정하고, 탄약수들은 포탄을 장전한다.

94. 개활지 / D

영광의 탱크 부대원이 전멸했던 곳 근처다.
탱크가 멈추고 남복이 내린다.
헤치를 열고 남복을 바라보는 영광...
남복이는 몇 번을 돌아서서 빨리 가라 손짓하고,
영광이는 헤치를 닫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닫는다.
조금 가다가 멈추는 탱크, 헤치가 열리더니 영광이가 불쑥 몸을 내민다.

영광　　니보라 동무~ 국방군 동무~
　　(남복 돌아보면) 동무 이름이 뭐이요?
남복　　알아서 뭐하게 이시키야...
영광　　내래 영광이야요, 김, 영광이~
남복　　어여 가 임마...
　　(영광이 계속 바라보자) 남복이여. 장, 남복이... 한참 형여 임마.

남복이가 씩 웃어주자 영광이도 천진난만하게 웃는다.
둘이 격의 없이 편하게 바라보며 웃는데,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날아와 둘 사이에서 폭발한다.
파편과 흙이 사방으로 튀고, 남복과 영광은 폭발 충격으로 멀리 날아간다.

95. 소나무 숲 / D

관측병이 망원경을 든 채 좌표를 수정해주고, 무전병이 말을 받아 전달한다.

관측병　　좌로 둘, 위로 하나 반.

96. 포병대대 진지 / D

포병 하나가 큰 소리로 수정좌표를 불러준다.

포병1　　좌로 둘, 위로 하나 반.

포신 각도를 조종하는 포병들... 다시 장전을 한다.

97. 개활지 / D

남복이가 겨우 정신을 차린다.
보면, 탱크에서 떨어진 영광이가 저쪽 멀리서 죽은 듯 넘어져 있다.
영광이에게 기어가는 남복이... 폭격은 더 심해진다.

98. 판문점 / D

미군 장군(윌리엄 중장)이 짚차에 타고 있고, 앞뒤로 의전 차량이 따라간다.
비포장길을 돌아 들어오면 휑한 벌판에 커다랗게 드리워진 천막이 보인다.
천막 앞으로 정복을 입은 미군이 비무장 상태로 서 있다.

천막 뒤쪽으로 북한군 장군 (김남일 대장)이 짚차를 타고 앞뒤로 의전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다.
그 쪽에도 정복을 입은 인민군들이 비무장 상태로 서있다.
천막을 가운데 두고 남쪽으로는 미군이, 북쪽으로는 인민군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 위로 자막 오른다.

판문점

윌리엄 중장과 남일 대장이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

99. 판문점 천막 안 / D

긴 탁자 위에 성조기와 유엔깃발, 그리고 상대편에는 인공기와 오성홍기가 꽂혀있다.
탁자에 나란히 앉아 앞을 바라보고 있는 윌리엄 중장과 남일 대장.
그 앞에는 종군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다.
진행을 맡은 미군 장교가 벽에 걸린 시계를 본다.
시간은 9시 59분을 지나 10시로 향해간다.

100. 전투장면 교차 / D

■ 길게 뻗은 길

중공군과 태국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 포병대대 진지

포병들이 끊임없이 포를 장전, 발사하고

■ 개활지

남복과 영광은 위태위태하게 도망다닌다.
남복과 영광이 흙먼지에 사라지며 자막 오른다.

1953년 7월 27일 10시

101. 판문점 천막 안 / D

시계가 정각 10시를 가리키자 미군 장교가 시계에서 눈을 떼고 서류를 읽는다.

장교 (영어) 본 휴전 협정의 공식 명칭은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 명한다.

휴전협정문을 읽어 내려가는 미군 장교. 기자들이 플래쉬를 터뜨리기 시작한다.

102. 읍사무소 내부 / D

무전병들이 예하부대에 휴전 사실을 고지한다.
시끄러운 통신 음어를 뒤로 흘리며 파이프 담배를 무는 장군... 연대장이 불을 붙여준다.

무전 델타, 에코, 여섯, 삼, 넷, 골프, 아홉, 로미오, 시에라, 공, 칠 삼...

자막
유엔군과 한국군, 조선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휴전을 선언한다.

103. 길게 뻗은 길 / D

■ 태국군 진영

태국군 진영에 무전이 들어온다.

무전병이 음어 해독을 하다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른다.

무전병(泰) 중대장님, 전투 종료 하랍니다.

■ 중공군 진영

장교(中) 뭐?

무전병(中) 현 시간부로 전투 중지하고 휴전 한답니다.

■ 태국군 진영

장교(泰) 사격 중지! 전군 사격 중지!

사격을 멈추는 태국군들.
중공군 진영에서도 사격이 멈춘다.
시끄럽던 격전지는 일순 정적이 감돈다.

104. 포병대대 진지, 막사 / D

포병들은 쉴 새 없이 사격을 하고, 천막 안에서는 무전음이 계속된다.
한쪽 귀를 막고 무전을 듣던 참모가, 기존 암호문으로 해독이 불가하자 큰 소리로 보고를 한다.

참모 대대장님, 암호문 들어옵니다.
유중령 뭔데?
참모 전 주파수 개방인데 해독 불가능 합니다.
유중령 암호 해독문 가져온다는 놈들은 뭐 하는 거이야?
참모 어쩝니까 대대장님.
유중령 일 없다. 계속 날리라!
참모 알겠습니다.

무전기로 계속 암호문 들어온다.

무전 로미오, 시에라, 공, 칠 삼...

105. 개활지 / D

융단폭격에 가까울 정도의 포탄이 떨어진다.
간신히 기어온 남복이 영광이를 안아들고, 영광이가 겨우 눈을 뜬다.
포탄을 뚫고 영광이를 끌고 가는 남복...
계속되는 무전기 음어 위로 자막 오른다.

자막

유엔군과 한국군, 조선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현시간부로 모든 교전을 중지하고 전선을 고착화 한다.

106. 포병대대, 진지 / D

■ 진지 아래

중위를 선두로 한 특공대원들이 단독군장 차림으로 산등성이를 뛰어간다.
중간에 비문 가방을 맨 병사 보이고...

■ 진지 중간

포대 진지로 올라온 중위, 사수를 붙잡고 뭐라 물어보는데, 사수가 막사 쪽을 가리킨다.

107. 포병대대, 본부 / D

막사 안으로 들어온 중위가 유중령에게 경례를 한다.
포성 때문에 둘은 악을 쓰면서 대화를 나눈다.

유중령　뭐이네?
중위　암호 해독문 못 받으신 거 맞습니까?
　　엊그제 18시 도착 예정이었던 거 말입니다.
유중령　기런데 와 그라네?
중위　다시 가져왔습니다.

비문 가방에서 암호를 꺼내는 중위. <군사1급비밀> <TOP SECRET>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한 게 남복이 가졌던 것과 같은 서류다.

108. 개활지 / D

남복이와 영광이는 계속되는 포격을 피해 지그재그로 뛰어간다.
탱크에 포탄이 명중하고, 남복과 영광이 근처에서도 폭발이 일어난다.
공중에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남복과 영광.
남복이는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고 영광이는 한 다리를 잃었다.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남복, 앞이 보이지 않는다.
영광이는 잘려진 다리를 보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린다.

영광　오마니... 오마니...
남복　내 눈... 내 눈...

기어가는 남복의 주머니에서 비문(암호 해독문)이 떨어진다.

109. 포병대대 막사 / D

전 씬 남복의 암호 해독문이 유중령이 들고 있는 서류와 겹쳐진다. 똑같다.
참모가 암호문을 받아 무전 내용을 해독한다.

무전　　델타, 에코, 여섯, 삼, 넷, 골프, 시에라, 공, 칠...

당황하는 참모... 몇 번을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유중령을 바라본다.

참모　　휴전.... 이랍니다.
유중령　　뭐?
참모　　휴전 협정이 체결됐답니다. 현 시간부로 모든 교전을 금지한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유중령,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얼굴이다.
비문을 전달한 중위도 믿기지 않는지 암호해독문과 음어를 번갈아 확인하는데...

110. 개활지 / D

앞을 보지 못한 채 기어가던 남복이 손에 영광이가 잡힌다.
영광이는 잘려진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며 넋이 나갔다.

남복　　뭐햐 이새끼야...
영광　　다리가... 다리가... 없어졌시요... 다리가
남복　　빨리 도망가 임마. 살아야 살 거 아녀.
영광　　내 다리가... 어디로 갔시요... 다리가 안보입네다.

영광의 다리를 더듬어보는 남복.
영광이가 이성을 상실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남복이를 때린다.
남복이가 영광이를 덮치며 고함을 친다.

남복　　정신 차려 이새끼야.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영광　　(정신 없다) 살려주시라요. 나좀 살려주시라요. 혼자 가지 마시라요.

영광이가 남복이를 들쳐업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 방향을 모른다.

남복　　길 잡어 이새끼야. 어느 쪽여?
영광　　(겨우 정신 차린다) 저기... 저쪽...
남복　　저쪽이 어디여?
영광　　오른, 오른...쪽...

영광이를 업고 뛰기 시작하는 남복.
발에 돌이 걸려 넘어지지만 다시 영광이를 업고 뛰어간다.
사방에서 포탄이 터지고, 둘의 모습은 포연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다 이내 종적을 감춘다.

111. 판문점 천막 안 / D

미군 장교가 계속 휴전 협정문을 읽어나가고 시계는 10시 12분을 가리킨다.

장교　(영어)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 가지 글의 각 협정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미군 장교가 서류를 덮고 탁자에 앉아있는 장군들을 차례로 본다.

장교　(영어) 휴전협정 참석자,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케이 해리슨.

호명이 끝나자 악수를 하는 남일과 윌리엄.
맞잡은 장성의 손 아래로 휴전 협정문이 놓여있다.
휴전 협정문에 사인된 이름이 하나씩 보인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미군 륙군 대장 마크 더블유 클라크'

112. 포병대대 진지, 막사 / D

무전기에서는 끝없이 음어가 쏟아지고, 천막 밖에서는 계속 포성이 들려온다.

참모　대대장님. 어떡합니까.
유중령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이 개새끼들이 누구 맘대로 휴전이네!
개성이 20키로야.
200키로를 안쉬고 달려왔는데, 20키로를 더 못가고 휴전이 말이 된?
저 산만 넘으면 내 고향이야.
마누라랑 자식 새끼들 시체가 저기서 썩어가고 있다고, 이 종간나 새끼들아!

지휘봉을 집어던지는 유중령... 참모가 잠시 생각하다 무전기를 든다.

참모　계속 포격 해. 다 퍼부어!

유중령이 허탈하게 의자에 앉는다. 얼마나 화가 끓어오르는지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다.

유중령　니보라...
참모　네, 대대장님.
유중령　포격... 중지시키라.
참모　네?
유중령　포격 중시하라 하지 않아서.
(철모 벗는다) 군인은 명령이 목숨이야.

유중령의 머리와 이마 근처는 오래된 땀과 먼지 때문에 수포가 가득하다.

유중령　니보라... 담배 게지고 완?

중위가 담배 하나를 준다.
담배를 받아 입에 물면 참모가 불을 붙여준다.
길게 담배연기를 내뿜는 유중령.
눈물이 흐른다...

113. 개활지 / D

마지막 한 발의 폭음을 끝으로 더 이상 포격은 없다.
대지는 검은 연기와 불길로 처연하고, 남복이와 영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잠시 후, 연기를 뚫고 영광이를 업은 남복이 뛰어온다.
포격이 그쳤음에도 필사적으로 뛰는 남복,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영광이를 업고 뛰다가 다시 넘어진다.
남복이 영광이를 다시 업으려다 멈추고 귀를 기울여본다.

남복　멈췄어... 멈춘 거 맞어?
영광　모르갔습니다.
남복　잘 봐 새끼야. 끝났어? 그치?

사방을 둘러보는 영광, 귀를 기울이는 남복.
주위는 너무나도 적막하다.

영광　끝... 났습네다...

미친놈처럼 비실비실 웃기 시작하는 남복...
영광이도 괴상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는다.

남복　살았어... 시팔... 살았다고...
영광　안죽었습네다... 그래도 안죽었시요...

둘의 웃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울음으로 바뀐다.
그러다 다시 웃다가 또 울다가...
살았어도 온전한 몸으로 살아남지 못한 것에 기쁨과 분노,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있다.
그 때 멀리서 전투기 굉음이 들린다.

남복　　뭐여 저게, 어떤 거여.
영광　　...무스땅 ...쌍간나...

멀리서 모습을 드러낸 전투기가 마치 둘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기수를 틀더니 저공비행을 한다.
죽음을 직감이라도 한 듯 영광이 눈을 감는데,
펑~ 소리와 함께 전투기 꼬리에서 삐라가 떨어진다.
꽃잎처럼 하늘을 덮으며 내리는 삐라...

남복　　뭐여, 뭐냐구 임마.

영광이 근처에 떨어진 삐라를 집어 든다.
삐라를 읽어가며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는 영광...

영광　　씨발... 휴전...

삐라를 보는 영광이 뒤에 #13의 불발탄이 보인다.
로트번호 US64227058.....
불발탄 위로 내려앉는 빨간 고추잠자리 한 마리...
불발탄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잠자리가 날아오른다.

잠자리를 따라 날아오르듯이 올라가는 카메라.
군무를 추듯 유영하는 잠자리떼와 만나는 순간,

쾅...

불발탄이 터진다.

114. 동 장소 / D

검은 포연이 가득한 화면이 천천히 걷히면 피투성이 팔이 보인다.
조금만 더 뻗으면 맞닿을 거리에 놓인 남복과 영광의 팔...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키듯 미세하게 떨리다가 이내 멈춘다.
불에 타다 만 삐라가 바람에 날려 둘의 손 가운데 떨어지며 삐라 헤드라인 보인다.

"휴전협정 체결"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삐라가 다시 바람에 쓸려 부서진 탱크 쪽으로 날아간다.

115. 초가마을 / D

일단의 인민군 병사들이 진군하고 있다.
사진 한 장을 들고 인민군 대열을 누비는 영광의 노모...
아무나 붙잡고 사진을 보여준다.

노모　　보시라요. 우리 막둥입네다. 아십네까?
보시라요... ...김, 영광입네다.
휴전 하면 돌아오는 거지요? 모르십네까?
이보라요. 우리 아들입네다... 살아있지요? 기렇지요?

116. 소학교 운동장 / D

폭격을 맞아 반 정도 부서진 소학교 운동장에 한복을 입은 아낙들과 청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며 빼곡하게 몰려있다.
곳곳에 '휴전회담 결사반대', '북진통일 이룩하자', '공산당을 무찌르자'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등의 현수막과 피켓이 보이고, 연단에 선 한 남자의 선창을 따라 일제히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자　　휴전협정 반대한다! 김일성을 때려잡자~
군중들　　김일성을 때려잡자~ 때려잡자~

수많은 인파 속에 아기를 업은 남복 부인이 보인다.
지친 얼굴에 건성으로 구호를 따라 외치는 아낙...
아낙 옆에 서있던 중년 여성이 업힌 애기를 바라본다.

중년女　　아이구, 이쁘게도 생겼네.
(구호) 북진통일 이룩하자~ 이룩하자~...
사낸가 지지밴가. 이름이 뭐유?
남복처　　(구호) 휴전협정 반대한다~ 반대한다~
사내에요. 원빈이.
중년女　　원빈? 이름도 어쩜 그렇게 이쁘게 졌어~ 아르르 까꿍!

남복 부인이 배시시 힘없는 미소를 보인다.

카메라 점점 빠지며 소학교에 가득한 인파를 비춘다.

중년(VO)　애기 아버지는 어디 갔나?
남복처(VO)　전쟁 나갔어요. 금방 올거라고 했는데...

휴전 협정 반대 시위 음성이 점점 작아지며 자막 오른다.

<자막>
한국전쟁 사망자 총 450만 명 추산.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으로 기록된다.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시된 휴전회담은
총 159회의 본 회담과 765회의 부속 회담을 거친 끝에
1953년 7월 27일 10시를 기해 발효된다.

휴전으로 전쟁이 잠시 멈추었으나,
전쟁 발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7. Epilogue / D

죽어있는 남복과 영광 위로 부서진 탱크가 보인다.
그 탱크 옆으로 철로가 놓이고, 남복과 영광이 죽은 자리에 현대식 기차역이 들어선다.
도라산역...

나들이를 나온 한 가족이 도라산역 안으로 들어간다.
걸음을 멈추는 꼬마, 뒤를 돌아보더니 뭔가를 본 듯 손을 들어 가리킨다.
부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꼬마의 눈에는 보인다.
T34/85 탱크 위에 타고 있는 남복과 영광이 모습...
둘은 포탑에 비스듬히 기대 군복을 풀어헤치고 담배를 나눠 피고 있다.

꼬마가 부모 손에 이끌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데, 둘과 눈이 마주친다.
손을 흔드는 꼬마...
남복이와 영광이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준다.

자막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 A.J. 머스트

<끝>